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March 2026  
vol. 411

Kun  
Woo  
Paik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Cover Story



낙동아트센터  
Nakdong Art Center

# 2026 시그니처 클래식 NAC

Symphony No.5 &  
Choral Series I-VIII

2026.3.28  
토요일 오후 5시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지휘 오충근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협연 한수진(Vn)

NAC!  
—  
운명을  
두드리다

# No.5

Series **I** 베토벤 No.5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 ITALIA



지휘 및 해설 홍석원



테너 이범주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2026. 3. 13.(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톡! 톡! 톡!

# 실내악

## 페스티벌



예술감독 & 특별  
출연자

26.03.11.  
수요일 7:30pm

26.03.12.  
목요일 7:30pm

26.03.13.  
금요일 7:30pm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트리오 헤르만

골든브라스

관람연령  
8세 이상

티켓  
R석 20,000원 / S석(2층) 10,000원

티켓할인  
누림회원 (40%)  
국가유공자-장애인-단체 20명 이상 (50%)  
초·중·고등학생, 예술인패스 (30%)

인터넷예매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

전화예매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 학생증, 장애인, 국가유공자증 등 대표소  
현장 확인 후 티켓 발권

해운대문화회관 예매처



피아노: 정민 / 첼로: 윤민우 / 트럼펫: 김민준 / 트럼بون: 김준원 / 기타: 지인환

피아노: 김민준 / 첼로: 윤민우 / 트럼펫: 김민준 / 트럼بون: 김준원 / 기타: 지인환

트럼بون: 이영우 / 트럼펫: 문지웅  
호른: 박용민 / 트럼펫: 박경철 / 트럼펫: 김용건



가수 황가람과 함께하는

# 신춘 음악회

가수  
황가람

2026. 3. 17.(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홀튼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자  
엔리카 장



악장  
안은탁



소프라노  
박지은



테너  
허동권



드럼  
김민동



모듬북  
김수동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홀튼심포니오케스트라 관람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예매 20%할인)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문의  
051)220.5811~4



예매바로가기



# 2026 낙동아트센터 주요공연일정

## 1 NAC@2026

### 지역민간교향악축제

영남권 최초 민간교향악축제  
2026. 7. 3. 금 ~ 7. 26. 일

7월 3일(금) 19:30

### 낙동아트센터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지휘 백진현, 피아노 아리스토 삼

7월 5일(일) 17:00

### KNN방송교향악단

지휘 서희태, 첼로 홍승아

7월 9일(목) 19:30

### 고잉홈 프로젝트

\*특별초청공연, 피아노 손열음

7월 16일(목) 19:30

###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 홍성택, 바이올린 진영훈

7월 19일(일) 17:00

### 가야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이효상, 피아노 서형민

7월 21일(화) 19:30

### 유나이티드코리아 오케스트라

지휘 이병욱, 바이올린 김윤희

7월 26일(일) 17:00

### 부산청년오케스트라

지휘 이동신, 첼로 양진우

## 2 NAC@시그니처클래식

### 심포니5번 & 코랄시리즈

협력예술단체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3월 28일(토) 17:00

### 시리즈 I

### 베토벤 5번 &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지휘 오충근, 바이올린 한수진

4월 25일(토) 17:00

### 시리즈 II

### 멘델스존 5번 & 페리시 알바스 하프 협주곡

지휘 차웅, 하프 황세희

5월 30일(토) 17:00

### 시리즈 III

### 슈베르트 5번 & 베토벤 삼중 협주곡

지휘 김 건, 김주영(Vn)

이명진(Vc), 김원민(Pf)

6월 27일(토) 17:00

### 시리즈 IV

### 쇼스타코비치 5번 & 엘가 첼로 협주곡

지휘 오충근, 첼로 이정현

9월 19일(토) 17:00

### 시리즈 V

### 차이콥스키 5번 &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지휘 장윤성, 첼로 이재리

10월 31일(토) 17:00

### 시리즈 VI

### 말러 5번 &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지휘 오충근, 플루트 조성현

11월 21일(토) 17:00

### 시리즈 VII

### 시벨리우스 5번 &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지휘 지중배, 바이올린 최송하

12월 26일(토) 17:00

### 시리즈 VIII

### 베토벤 9번

지휘 오충근

소프라노 박하나, 알토 양송미  
테너 김충희, 베이스 사무엘 윤

## 3 NAC@시그니처클래식

### NAFO시리즈

### 연주

낙동아트센터페스티벌  
오케스트라(NAFO)

6월 20일(토) 17:00

### 오페라 속의 합창 I

9월 17일(목) 19:30

### 오페라 속의 합창 II

12월 19일(토) 17:00

### 2026년 송년음악회

4 NAC@2026  
실내악시리즈

4월 9일(목) 19:30  
에코양상블

4월 16일(목) 19:30  
양상블 코스모폴리탄

4월 23일(목) 19:30  
트리오 잼

4월 28일(화) 19:30  
김해신포니에타

11월 19일(목) 19:30  
부산솔로이스츠

5 NAC@2026  
성악시리즈

9월 8일(화) 19:30  
부산솔리스트양상블

10월 20일(화) 19:30  
한국슈베르트협회

10월 23일(금) 19:30  
가곡과 아리아의 밤

6 NAC@2026  
발레

부산아이디발레단

7 NAC@2026  
마티네콘서트  
양상블극장

피아노  
서형민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시리즈 (연중 7회)

성악  
해피양상블  
양상블음악연구회  
오네스토뮤직양상블  
NEW RISING VOICE  
부산독일가곡연구회 등

실내악  
양상블잼

재즈  
재즈피아니스트 조윤성 &  
세컨발코니 외 (4회 공연)

8 특별공연 및 축제

4월 부산연극제

5월 그루잠 에코백

6월 인문학콘서트「양자전쟁」

7월 대한민국연극제

8월 K-STREET BATTLE  
WITH PERFORMANCE

9월 부산국제마루음악제

9월 연극「파랑새」

9 NAC@2026  
리사이틀

12월 24일(목) 19:30  
소프라노 조수미 리사이틀

10 NAC@2026  
해외 초청 기획연주

3월 1일(일) 17:00  
킹스싱어즈

3월 5일(목) 19:30  
독일 쾰른방송(WDR)교향악단  
지휘 안드리스 포가  
바이올린 김서현, 첼로 다니엘 뮐러-쇼트

9월 22일(화) 19:30  
프랑스 메츠챔버오케스트라

11월 28일(토) 17:0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허바우 브라스챔버

12월 6일(일) 17:00  
바이올리니스트 라이너 호넥

12월 11일(금) 19:30  
영국 BBC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 온 스트르고르스  
바이올린 김봄소리



\*상기 모든 공연들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inema Paradiso

# Begin Again

## 시네마 파라디소



D.Bass Sean Pentland

Vocal 박현수

Cello 홍진호

Piano 조윤성

Drum 석다연

2026. 3. 14.(토) 1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예술의 초대 Since 1992

## CONTENTS



10 편집위원 칼럼  
부산 예술의 오션 뷰



12 특별기고  
굿바이, 무대 하부의 심장



14 김PD의 PD수첩 ②  
공연은 무대 밖에서 완성된다

16 저작권과 문화예술  
안무저작물의 특징

18 Cultural Issue  
스크린에서 태어난 음악

24 Cover Story 1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28 Cover Story 2  
연극 '칼로막베스'

32 Preview

42 Program Guide

57 2026 공연프로그램 안내

March 2026

Vol.411

발행인 차재근      편집인 남영희      편집책임 남양욱      편집담당 정복엽

편집위원 구모룡, 김윤선, 김지윤, 이상현, 장현정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607-6000

발행일 2026년 2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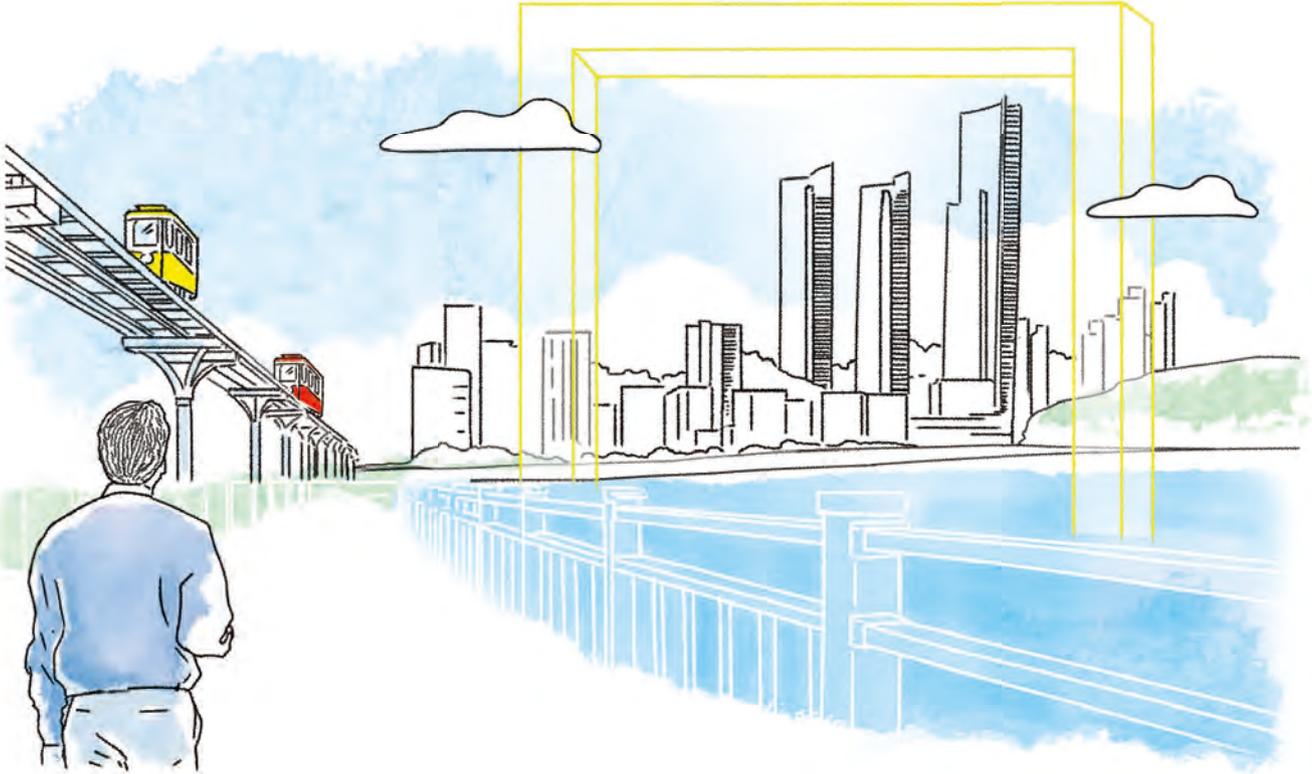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 부산 예술의 오션뷰

구모룡 문학평론가,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



일러스트: 한미정

사람은 저마다 생의 리듬을 갖는다. 생활과 노동이 몸에 새긴 패턴이다. 나는 1월이 되면 마치 겨울잠을 자듯이 무기력증을 앓는다. 하는 일이 시들하고 말아 둔 글쓰기도 진척이 없다. 게으르게 빈둥거리거나 어디라도 훌쩍 다녀와서야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된다. 이는 8월 여름도 거의 진배없는데 40여 년 교직 생활이 만든 현상이다. 작년에 정년을 하고서 강의와 학생 지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었지만 지난해의 여름과 올 겨울에도 변함없이 몸은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구정을 지난 이즈음에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다.

요즘 생활의 변화를 위하여 틈만 나면 걷는다. 이 또한 지난 일 년 사이에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한 시간 정도

면 당도하는 바닷가 길을 따라 동네 한 바퀴를 돈다. 구덕포, 청사포, 미포에 접한 바다를 보고 해운대를 거쳐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마치 어떤 의례처럼 되었다. 산과 강과 바다가 모두 있지만 우리 고향을 말하는 주요 색인은 단연 바다다. 해양을 중심에 둔 대학에서 오래도록 근무했으나 바다가 구체적인 실감으로 다가오기는 최근이다. 바다는 끊임없이 표정을 바꾸면서 말을 건넨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염없이 바라보기를 거듭한다. 월러스 J. 니콜스가 제안한 치유의 프로젝트인 '블루 마인드' 탓만 아니다. 그는 인식과 감정, 공감, 창의력, 건강과 힐링, 인간과 물의 관계라는 새로운 개념인 블루 마인드를 통하여 서정적 삶의 가치를 부각한다. 이보다 먼저 로맹 톨랑은 오래 전에 '대양의 느낌'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수평선 너머 망

망대해를 상상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종교적 심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근래에 유행하는 말인 ‘오션 뷰’는 과장에 가깝다. 겨우 연안(coast)의 일부가 시야에 들어올 뿐인데 대양(ocean)을 강조하면서 경관의 사용 가치를 증폭한다. 하지만 이 말이 지닌 역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뛰어난 여성시인인 김혜순의 다음과 같은 시편이 전달하는 정동(affect)이 그렇다.

일 년 열두 달/광안대교가 찾아와서 창문을 두드렸다//  
비가 와도 예외는 없었다/이 슬픔을 해결해야 해 생각했  
지만/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또 찾아왔다//집안엔 흘러보  
내지 못한 눈물이 늘/고여 있었고/눈물 위에 기선이 떠  
있었다/매일 같은 시간/광안대교는 다리를 늘어뜨려/창  
문을 부수려고 했다//집안의 가구들이 물속에서 스크림  
을 짰다/그러면 여자는 눈을 감고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설 준비를 했다//눈을 뜨면 어느새 광안대교의 우  
람한 다리들이/집안에 들어와 있었다//광안대교가 여자  
의 머리채를 움켜 쥐었다/여자의 몸이 태평양 저 건너편  
으로 떨어졌다//여자의 영혼이 소금처럼 풀어지고/바다  
는 한없이 아파했다//밤이 지나 등불이 꺼지면/광안대  
교는 어느새 창밖에서 있었다/물속에서 전화벨이 울리  
고/저녁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내가 방문을 열자/  
여자가 육신거리는 바다 밑 동굴에 앉아/조그만 물고기  
들을 보살피고 있었다

김혜순의 시집 『싱크로나이즈 바다 아네모네』에 실려 있는 「오션 뷰」 전문이다. 시편 속에서 바다를 향한 “여자”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침해하는 사물이 “광안대교”이다. 이는 도시의 상징이며 자본의 권력이다. 저 너머 대양의 느낌으로 서로 연결된 심성을 지닌 여성은 스펙터클의 폭력에 무참하다. 하지만 바다는 시 속의 주인공과 슬픔을 나누고 영혼을 위무하며 생명을 기르게 한다. 난폭한 근대가 침탈한 부산의 바다가 신생의 희망으로 다시 읽힌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션 뷰’는 단지 사용가치를

과장하는 광고의 위장을 넘어 우리 안에 대양을 품게 하는 맥락으로 변전한다. 김혜순의 「오션 뷰」를 통하여 부산 예술의 전망을 끌어내려는 나의 의도가 과잉일까? 부산은 물의 끝이 아니라 바다와 만나는 변경으로 그 변방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바다를 매개로 우리 사회의 체제를 바꾸는 강력한 ‘히지모멘트’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인용한 시편으로 이를 모두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러함에도 문학, 영화, 연극, 무용, 미술, 음악, 건축에 내재한 중심부 모방의 모더니즘이 지닌 무성격을 바다를 계기로 삼아 극복하는 과정이 중요롭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부산의 문화와 예술이 따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다른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대양을 통하여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방법적 사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더 많은 특이성을 발명하는 일과 더불어 예술을 통하여 일극의 국가 중심 체제를 해소하는 길을 열 수 있다. 이럴 때에 부산 예술의 오션 뷰는 하나의 사상이 된다. 물론 낡은 모더니티에 종속되어 자기중심적인 로컬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 동어반복이 여전한 현실이다. 소위 기성의 전문가주의가 만든 성체가 견고하다. 혁신과 도약은 연안을 건너 대양을 호흡하는 일만큼 신진의 모험을 요구한다. 부산의 예술가는 처음 출항하는 선원과 같이 부푼 꿈을 꿀 필요가 있다. 단지 난파하는 바다를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읽고 쓰는 문학도이다. 고립을 자초하고 관계에 익숙하지 않다. 오늘날의 예술은 서로 넘나드는 관계의 미학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니콜라 부리요가 말한 ‘관계의 미학’은 아직 멀게 느껴지지만 열린 도시 부산은 장르의 경계를 넘고, 공간과 인프라의 분할을 가로질러 연합할 가능성을 널리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과감하게 견인하여 유동하는 물결로 활개 치는 예술을 갈망한다. 이를 위하여 더 많은 해양성을 가져오고 더 많은 소통을 요청한다. 문화와 예술로써 세계와 함께하는 물의 도시 부산의 리듬을 새롭게 창안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이제 그러한 도약이 예견되는 시점이 되었다. 더 이상 우물 안의 개구리로 남지 않아야 한다.

# 굿바이, 무대 하부의 심장

## 37년을 버텨 온 오케스트라 피트 구동 장치의 기록

김동주 (재)부산문화회관 무대감독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텅 빈 무대를 바라보노라니 오랜 시간 이곳에서 함께한 각종 무대기계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공연장은 고정된 건축물이지만, 그 안에서 구현되는 공연예술은 매 순간 달라진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대기계다.

무대기계는 단순한 설비의 집합이 아니라 공연장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유기적 시스템이다. 이를 사람의 신체에 비유할 수도 있겠다. 가령, 동력을 만들어내는 모터는 심장에 해당하고, 그 힘을 무대 곳곳으로 전달하는 감속기·샤프트·체인·와이어로프는 근육과 힘줄이다. 활차, 윈치, 와인더처럼 무대 상·하부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장치는 관절 역할을 한다. 또한 모든 움직임을 판단하고 명령하는 제어반과 PLC, 인버터는 두뇌에 비견할 수 있으며, 과부하 방지 장치·리미트 스위치·비상정지 시스템과 같은 안전장치는 신경계에 해당한다. 개별 장치 하나하나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무대기계의 효능과 한계는 이들이 어떻게 결합되고 제어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무대기계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8년 개관한 부산문화회관 무대기계 시스템은 당시로서는 표준적인 수준이었다.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구동 방식은 모터와 와이어로프 중심의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특히 상부 무대기계는 하중을

상쇄하는 균형추, 즉 웨이트를 활용한 밸런스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인력과 기계력이 결합된 형태로 운용되었다. 이 시기의 무대기계는 빠른 동작이나 복잡한 연출보다는 안전하고 확실한 구동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다.

이러한 구조는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 전통적인 연극 장르를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대형 뮤지컬 제작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대기계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는 점차 분명해졌다. 대형 세트의 빈번한 전환, 반복적이면서 속도감을 요구하는 승강 운전, 복수 장치의 동기 제어가 일상화되면서 웨이트 중심의 기존 시스템은 작업 효율과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물론 모든 장치가 개관 당시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 모터와 브레이크, 제어 부품은 노후화나 고장에 따라 교체되었고, 와이어 배열이나 하중 분산 방식이 조정되기도 했으며, 무대 상부 장치 일부는 부분적으로 보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보완만으로는 변화하는 공연제작 환경을 충분히 따라가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0년 무대기계 리모델링이 한차례 추진되었다. 다만, 이때의 리모델링은 기존 시스템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 구조를 유지한 채 핵심 기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상부 무대기계 일부는 웨이트 방식에서 윈치 구동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그 결과 웨이트 방식과 윈치 방식이 병행·혼용되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는 공연의 성격과 장치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구동 방식을 선택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1988년 개관 당시부터 사용된 일본 미쓰비시 사의 산업용 모터와 감속기 일체형 구동 장치

간 운용 경험을 가진 전임 감독들의 소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매뉴얼이나 문서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실무자들의 축적된 경험은 장치의 운용과 관리에 하나의 지침이 되었다. 베어링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지, 진동이 안정적인지, 절연 상태가 양호한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관찰되면 기계를 분해해서 살피고 필요한 부속품을 교체하기도 했다.

제어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릴레이 중심 제어반은 PLC 기반 제어 시스템으로 교체되었으며, 주요 승강 장치에 인버터 제어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장치 간 인터록 기능이 체계화되었고, 복수 장치의 연동 운전과 상태 감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완전한 자동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 리모델링을 기점으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은 대형 뮤지컬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개관 당시의 원형대로 사용된 장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대 하부에 설치된 일본 미쓰비시(Mitsubishi) 사의 산업용 모터와 감속기 일체형 구동 장치다. 본래는 산업 설비용으로 설계된 제품이지만, 1980년대 국내 공연장에 널리 적용되었다. 감속기와 결합된 구조라 외형은 크고 투박하지만, 반복적인 승강 운전이 최적화된 내구성과 안정성을 갖추었다. 오케스트라 피트 승강 장치의 주 동력원인데, 피트를 하강시켜 연주 공간을 확보하거나 무대 레벨까지 상승시켜 객석과 무대를 동일 평면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관객의 시야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형 오페라와 뮤지컬 공연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구동 장치는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설계가 잘 되었던 까닭에 198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상 가동되었다. 설치 이후부터 37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근속할 수 있었던 데는 세심한 유지관리 노력 역시 큰 몫을 담당했다. 무대에 스태프에서는 2016년 부산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전환될 당시 도면과 점검 기록을 인계받았으며, 이와 동시에 장기

2026년 진행 중인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기계 리모델링 사업은 개별 장비의 유지 보수나 성능 개선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추진된다. 기존 설비를 철거하고 현대적 기준에 맞추어 무대기계 시스템 전반을 새롭게 구성하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다. 오케스트라 피트 역시 기존의 구동 장치를 철거하고, 자동화된 승강 장치와 정밀 위치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미쓰비시 모터와 감속기는 지금도 거뜰하게 정상 운전이 가능한 장치지만, 기술적 전환점 앞에서 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 모터 위에 켜켜이 내려앉은 먼지를 털어내라니 무대기계 종사자로서 여러 생각이 스친다. 오케스트라 피트가 승강할 때 느껴지던 미세한 진동과 기어 소리, 기름 냄새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새로 도입될 시스템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기능을 수행하게 될 테지만, 보이지 않는 무대 하부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감당해 온 시간 37년은 쉽게 환원될 수 없는 기억의 층위로 남아 있다.

공연예술은 무대 위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한 편의 공연이 완성되기까지는 출연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술 스태프와 행정 인력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대 뒤편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대기계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공연을 움직여 왔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이 무대기계를 부산의 공연 문화를 떠받치는 든직한 동반자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계승과 도약이다. 새로운 무대기계 시스템은 지금껏 축적된 사람과 기술, 경험의 연장선 위에서 부산 공연예술 무대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다.

# 공연은 무대 밖에서 완성된다

김민지

(재)부산문화회관 공연예술팀 차장

## 그래서, 뭘 먹지?

공연을 예매하면 가장 먼저 작품 정보를 확인한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뭘 먹지?”

공연을 보러 가는 날이면 그 동네의 맛집도 자연스럽게 함께 떠오른다. 공연장은 목적지지만, 그날은 그 동네를 통째로 경험하는 날이기도 하니까. 공연을 보러 가는 날은 괜히 하루가 조금 더 들뜬다. 식사 시간도, 이동 시간도, 카페에 앉아 있는 시간도 모두 공연을 중심으로 배열된다.

서초동에서 공연을 보던 시절에는 늘 찾던 메뉴가 있었다. 고소한 검은콩두유크림누들을 먹고 공연장으로 향하거나 매운첼판돈까스를 먹으며 공연 전 긴장을 정리했다. 공연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24시간 볏국집으로 향했다. 뜨끈한 볏국집 한 그릇을 먹으며 그날의 장면을 천천히 떠올렸다. 작품은 달랐지만 그 동네에서의 공연은 늘 비슷한 걸로 남아 있다.

대학로에 가면 고민은 단순하다. 칼국수냐, 돌솥밥이냐. 칼국수집의 생선튀김도 꼭 먹어야 할 메뉴지만 혼자 가는 날이면 결국 칼국수만 주문한다. 둘 다 먹기엔 양이 많다. 아쉬움을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음에 다시 오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 돌솥밥 집은 또 다른 선택지다. 뚜껑을 열면 김이 오르고 밥을 덜어 먹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 집은 맥주 한 잔 곁들이기에도 좋은 곳이지만 공연 전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 괜히 든든해진다.

구리에 가면 떠오르는 조합은 명확하다. 낙지볶음과 칼국수. 매운 양념에 볶아진 낙지를 먹고 남은 양념에 칼국수를 비벼 마무리하는 흐름은 거의 공식이다. 작년에 근처 전시를 보러 갔다가 일부러 이전한 그 집까지 찾아갔다.



혼자였지만 망설일 수 없었다. 그 집에서는 둘을 함께 먹어야 맵기가 정리된다.

“저 혼자 먹을 거예요. 양 조금만 주세요.”

그래도 넉넉했다. 남은 건 포장했다. 전시의 한 장면과 낙지볶음의 매운맛이 이상하게 겹쳐 남아 있었다. 무엇이 더 또렷한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날의 기억이 함께 묶여 있다는 건 분명하다.

요즘은 공연을 예매하면 맛집만 찾지 않는다.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는 없는지, 산책할 만한 길은 어디인지, 함께 볼 수 있는 전시는 없는지도 같이 검색한다. 공연만 보고 돌아오는 날은 거의 없다. 공연을 중심으로 하루를 묶는다. 하나의 작은 패키지처럼.

##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

공연을 보러 가는 날은 이동부터 다르다. 차로 갈지, 대중교통을 이용할지에 따라 하루의 리듬이 조금씩 달라진다. 어디에 먼저 닿느냐에 따라 들르는 장소가 달라지고

걷는 길이 달라진다. 같은 공연장이라도 도착하는 방식에 따라 그날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진다.

날씨도 변수다. 비가 오면 조금 더 일찍 나서고, 바람이 세면 이동 경로를 바꾼다.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거꾸로 계산한다. 여유 있게 도착하고 싶다. 숨이 차지 않은 상태로 객석에 앉고 싶다.

누구와 가는지도 중요하다. 함께 보는 사람이 공연을 좋아할지, 어떤 장면에서 웃을지, 어디에서 감탄할지 괜히 상상해본다. 괜히 웃을 한 번 더 고르게 되고 향수도 다시 뿌리게 된다. 공연장은 여전히 조금은 특별한 공간이니까.

공연장에 도착하면 로비부터 자연스럽게 둘러보게 된다. 포토존 앞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 티켓을 확인하는 손길,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들. 그 공간 전체에 묘한 설렘이 번져 있다.

좌석에 앉으면 먼저 시야를 확인하고 객석의 공기를 느낀다. 공연 시작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작은 움직임과 표정까지 괜히 눈에 담게 된다. 누군가는 프로그램을 펼쳐보고 누군가는 무대를 바라본다. 그 사이에서 나는 하우스 운영의 흐름을 살피고 프로그램북을 끝까지 읽어 내려간다. 제작진 이름까지. 아마도 직업병일 것이다.

조명이 꺼지기 직전, 객석 전체가 동시에 숨을 고르는 순간이 있다. 그 고요한 공기가 좋다. 공연은 막이 오르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처럼 느껴진다.

간이 있다. 그 고요한 공기가 좋다. 공연은 막이 오르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처럼 느껴진다.

### 그날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공연이 끝나면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객석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먼저 본다. 누군가는 환하게 웃고 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 반응을 보는 것도 묘미다.

“그 장면 좋지 않았어?”

“나는 거기 좀 아쉬웠어.”

옆자리에서 들리는 대화에 괜히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내가 좋았던 부분을 다른 사람도 좋아했는지, 내가 놓친 지점은 없었는지.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객석을 서둘러 나오지 않는다. 공연의 여운은 무대 위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관객들의 표정과 목소리 속에서도 이어진다. 어떤 공연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 장면 하나, 음악 한 구절, 배우의 숨소리.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의 음식과 거리의 공기까지 함께 떠오른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도 그런 공간이었으면 한다. 공연을 보러 왔다가 하루가 하나의 작은 여행이 되는 곳. 객석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날이 하나의 기억으로 남는 곳. 공연은 무대 위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날을 온전히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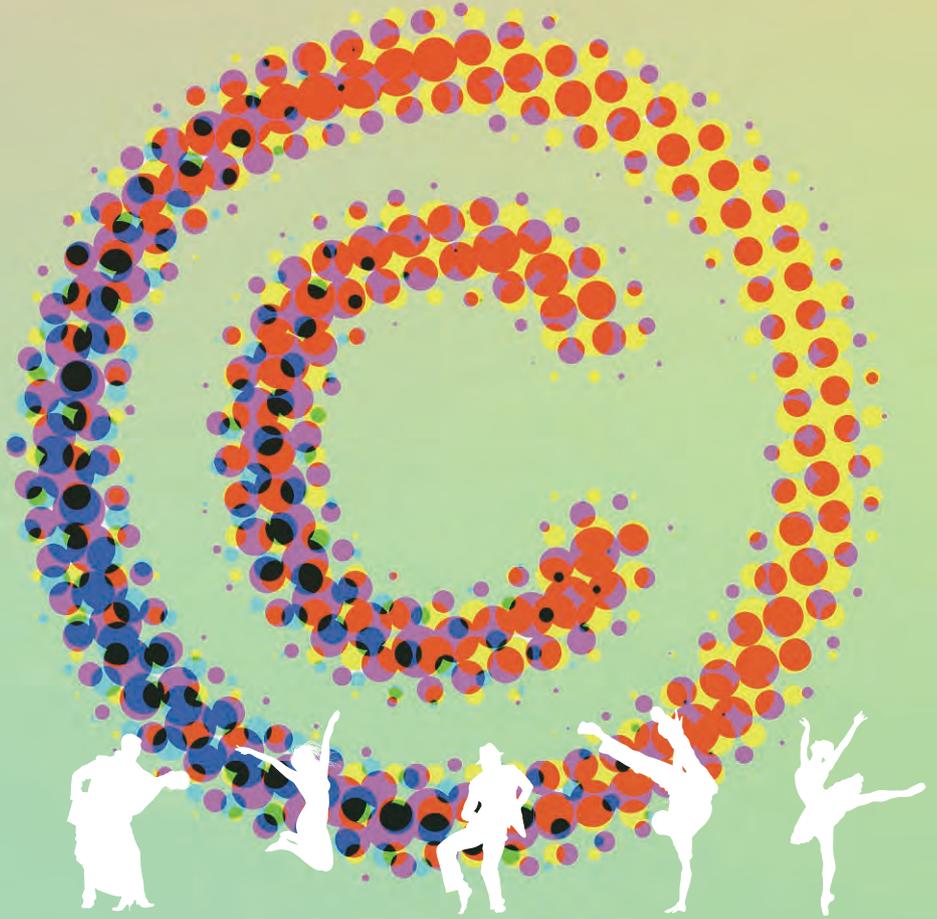
나에게 공연은 스쳐 지나가는 일정이 아니라 짧지만 분명한 여행 같은 하루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공연을 예매하면 먼저 지도를 켜다. 근처 맛집을 보고, 걷고 싶은 길을 찾고, 커피 한 잔 할 곳도 함께 찾아본다.

우리는 공연을 보러 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날의 맛과 길, 공기와 풍경까지 함께 고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공연은 그 여정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 안무저작물의 특징

☞ 계승균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수



## I. 안무저작물에 대한 관심 제고

2023년 후반부터 2024년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저작권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영역은 건축저작물과 안무저작물이다. 특히 안무저작물에 대한 관심은 왜 노래에는 작사가와 작사가를 표시하면서 음악에 따르는 안무에 대한 안무가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중곡에 대한 방송에서 안무가도 저작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안무가들이 불만을 제기하여 안무가를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중곡에 대한 안무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안무가 성명 표시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사실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안무가와 무용가를 구별하여야 한다. 안무가는 작사자와 작곡가에 해당되어 저작권자이지만 무용가는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

자이다. 즉 두 분야는 서로 다른 권리이고 권리의 내용도 다르다.

## II. 안무저작물의 특징

### 1 무대저작물

안무저작물은 무대저작물(Bühnenwerk)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무대저작물이라는 의미는 공연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무대저작물이라는 용어는 저작권법의 용어는 아니지만 ‘안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무대라는 공간과 결합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무대라는 것은 특정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여도 되고 거리도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안무가 구현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안무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할 때에는 간접적이

기는 하지만 무대와외의 연관성 역시 판단되어야 할 요소이기도 하다.

## 2 인간의 몸동작을 통해서 표현

안무저작물은 인간의 몸동작을 통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어문저작물은 문자나 말을 통해서, 음악저작물은 음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듯이 안무저작물은 인간의 몸동작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몸동작’이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문자나 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한대라고 할 수 있지만 몸동작은 표현에 있어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안무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할 때에는 안무에 나타난 몸동작 자체뿐만 아니라 안무 몸동작과 연관된 안무 주제, 음악, 배경, 가사, 의상, 무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안무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지만 안무와 결합된 여러 요소들과의 연관성도 창작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방송 등에서 로봇이 추는 춤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안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로봇이 추는 춤(?)은 기계가 행하는 동작이지 인간의 안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논의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3 안무의 주제가 중요

안무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사상이나 감정)를 살펴 보아서 몸동작의 창작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제가 몸동작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단순한 시그니처 몸동작이라고 하더라도 보호의 대상이 될 정도의 특징적 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전체 주제 아래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몸동작의 연속성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안무가의 주제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 4 개별 몸동작의 저작물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무저작물의 특징이 인간의 몸

동작이라고 하였는데 개별 몸동작이 저작물성이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다. 즉 개별 몸동작, 특정 몸동작이 저작권의 대상으로서 저작물로서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경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개별 몸동작, 특정 몸동작에 과연 창작성이 존재하는가이다. 몸동작의 한계성을 이미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몸동작이 흔히 있는 동작이라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 또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동작이라면 창작성이 부정될 것이다.

개별 몸동작에 대한 저작물성 여부 판단은 예를 들어 어문저작물의 경우 ‘특정 단어’ 만에, 음악저작물에서 ‘특정 악곡’ 부분 만에 저작권을 인정하여야 달라는 것과 비슷하다. 연예인의 ‘유행어’도 위트가 있고 재치가 있어서 인기가 있는 표현이지만 이 또한 너무 짧기도 하고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인기가 있다는 것과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 대상이다.

그리고 어떤 동작을 ‘먼저’ 하였다고 하여 이 동작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오해이다. 안무의 동작에 창작성이나 독자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어떤 동작을 먼저하였다고 해서 바로 창작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창작성 유무가 보호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5 대중곡에 사용된 안무저작물의 특징

대부분의 안무는 음악(악곡)과 결합되어 있어서 악곡의 리듬과 어울리는 안무 동작을 표현하기도 하다. 그리고 대중곡의 안무는 대부분 가사와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대중적인 악곡에 대한 안무저작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우선, 대중곡의 안무 공연시간은 순수무용예술저작물과 비교하여 보면 실연 시간이 2~3분 정도로 짧고, 대부분 빠른 템포에 따른 빠른 동작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몇 가지 동작의 단순한 결합을 안무의 구성요소로 한다. 또한 혼성그룹인지 여부, 남성그룹 또는 여성그룹인지에 따라 안무의 내용이 달라진다. 또한, 대부분 군무를 특징으로 하지만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안무의 내용이 달라진다.

# 스크린에서 태어난 음악

## 부산에서 만나는 영화음악콘서트

송현민 음악평론가

부산이 '영화의 도시'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국 영화 초창기부터 상영관 문화가 일찍 자리 잡은 도시였고, 남포동과 서면에는 대형 개봉관이 밀집해 있었다. 여기에 1996년 남포동과 수영만 일대에서 첫 회를 장식한 부산국제영화제가 더해지며 부산은 세계 영화의 흐름과 직접 연결되었다. 특히 아시아 영화의 허브를 표방한 이 영화제는 신작 상영은 물론 영화인들이 교류하는 장을 형성했고, 부산을 '영화를 보는 도시'에서 '영화를 만드는 도시'로 확장했다. 영화의전당, 영화촬영스튜디오 등도 영화 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부산은 스크린을 넘어, 영화가 도시의 문화 언어로 작동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부산에서 만나는 필름 콘서트나 영화음악 콘서트는 영화 문화가 살아 움직이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때 영화음악은 '클래식 음악의 변주' 혹은 '대중 친화적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곤 했다. 그러나 최근의 영화음악 공연들은 분명한 자기 얼굴을 갖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힘으로 영화적 스펙터클을 재현하기도 하고, 어떤 무대든 한 작곡가의 미학을 조용히 응시하며 사적인 감정을 불러낸다. 같은 영화음악이지만, 접근법은 놀라울 만큼 다채롭다.

올해 10월에도 부산국제영화제(10.6~15)가 펼쳐질 텐데, 그보다 앞선 3월에 묘할 정도로 많은 수의 영화음악콘서트가 부산에서 열려서, 영화음악 축제가 펼쳐지는 듯하다.

### 화면 위의 음악, 추억 속의 음악

3월 8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2016년 작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이 필름 콘서트로 오른다. 필름 콘서트는 영화를 상영하며, 스크린 앞의 오케스트라가 전편의 음악을 연주하는 형식이다. '춤추는 지휘자'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백윤학 지휘자가 이끄는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박진희가 함께 하는 공연이다.

도쿄에 사는 소년 타키와 시골에 사는 소녀 미츠하는 어느 날 서로의 영혼이 바뀐 채 하루를 살게 되는 신기한 일을 경험한다.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두 청소년의 이야기는 라이브 연주와 결합하며 감정의 밀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음악이 살아 움직이며 장면의 결을 바꾸는 순간을 즐기는 것이 필름콘서트의 묘미 중 하나다.

영화를 보며 즐기는 콘서트가 시각과 청각을 자극한다면, <시네마 파라디소-Begin Again>은 음악만으로 추억을 자극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1965년 작 <사운드 오브 뮤직>부터 <윈스>(2009), <레 미제라블>(2012), <캣츠>(2019)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이어지며 관객들의 기억과 추억을 자연스럽게 호출한다. 특히 화이트테이에 열리는 공연이라는 점도 이 무대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요소다. 첼리스트 홍진호, 보컬 박현수, 피아니스트 조윤성, 드러머 석다연, 더블베이스리스트 션 펜틀랜드가 함께한다. 3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 선율의 왕 vs. 사운드의 제왕

3월 20일 부산콘서트홀 무대에 오르는 <존 윌리엄스 VS



필름콘서트 <너의 이름은.>

한스 짐머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두 영화음악가의 음악적 표정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공연은 영화음악이 어떻게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이기도 하다.

존 윌리엄스(1932~)는 영화음악의 세계를 오늘날의 클래식으로 정전화한 인물이다. 그는 미국 UCLA에서 작곡을 공부하고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뒤, 본격적인 영화음악을 작곡했다. 그의 음악은 명확한 선율과 주제 중심의 작법이 핵심이다. 등장인물과 상황마다 고유한 테마를 부여하고, 이를 변주·발전시키는 방식에서 바그너의 라이트 모티프 전통을 연상시킨다. <조스>(1975), <스타워즈>(1977), <인디애나 존스>(1981), <E.T.>(1982), <해리 포터>(2001)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그의 음악은 영화의 이미지를 넘어 세기의 선율로 남아 있다.

반면 한스 짐머(1957~)는 정규 교육보다는 광고 음악과 팝음악 작업을 거쳐 영화계로 진입했다. 존 윌리엄스에 비해 리듬, 음향의 밀도, 반복 구조에 방점을 찍는 것이 그의 음악적 특징이다. 특히 오케스트라와 화려한 전자음향을 결합한 사운드는 영화의 장면을 설명하기보다 관객을 스크린 안으로 빨아들인다. <글래디에이터>(2000), <다크 나이트> 3부작(2005~2012), <인셉션>(2010), <인터스텔라>(2014), <들텐>(2021)에 이르기까지, 한스 짐머의 음악은 영화음악을 ‘체험하는 사운드’로 확장시켰다.

이번 공연에서는 최영선의 지휘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고, 바이올리니스트 김회진, 색소포니스트 조세형이 함께 한다. 선율의 힘(존 윌리엄스)과 사운드의 밀도(한스 짐머), 두 방식이 만들어내는 영화음악의 온도 차이를 오케스트라의 생생한 울림으로 체감하며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 영화에서 태어나, 이제는 음악으로 기억되며

3월 29일 부산콘서트홀 챔버홀에서는 류이치 사카모토(1952~2023)를 기리는 트리뷰트 콘서트가 열린다. 2023년 세상을 떠난 그는 영화음악가이자, 음악의 경계를 허

문 예술가였다. 1980년대 전자음악 그룹 ‘Y.M.O’로 주목받았던 그는, 1983년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를 통해 영화음악과 인연을 맺었고, <마지막 황제>(1988)로 아카데미 영화음악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류이치 사카모토

사카모토의 음악은 스크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인물들의 내면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듯하다. 때로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듯 느껴질 만큼 절제되어 있고, 때로는 침묵과 여백 같은 잔잔한 음악들이 시간이 지나 깊은 울림으로 돌아온다. 무엇보다 사카모토의 음악은 그의 영화를 보지 않은 이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전자음악과 클래식, 실험과 서정 사이를 오간 그의 음악은 영화음악이 반드시 영화에 종속된 예술이 아니라, 얼마나 독립적인 음악과 언어가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피아니스트 한주현, 바이올리니스트 양운정, 첼리스트 이라가 함께 하는 무대다. 사카모토가 오케스트라로 빛낸 곡들이 클래식 음악의 대표적인 장르인 피아노 3중주(피아노·바이올린·첼로)로 옷을 갈아입고 우리와 만난다.

이처럼 3월의 부산은 스크린에서 태어난 음악들이 클래식 공연 무대를 건너오는 시간이다. 어떤 음악은 영화 속 장면을 불러오고, 어떤 음악은 기억을 흔들고, 또 어떤 음악은 영화가 사라진 뒤에도 남아 조용히 삶의 배경이 된다.

무엇보다 영화음악 콘서트들이 연달아 펼쳐지는 이 풍경은 부산이 더 이상 ‘영화를 보는 도시’에 머물지 않음을 말해준다. 영화가 남긴 소리들이 부산 공연장 곳곳에서 다시 호흡하며, 부산의 영화 문화는 음악과 함께 또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 언젠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영화음악을 주제로 한 축제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스크린의 빛과 오케스트라의 울림이 겹쳐지는 이 도시는, 그렇게 영화와 음악이 함께 숨 쉬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 일상에서 만나는 **소소한 행복**

## 부산시립예술단 관객맞춤 공연

# 2026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희망 기관 모집

# 추가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특별한 순간  
2026년 부산시립예술단이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가합니다.

### 모집 개요

-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부산시립예술단 맞춤공연
- 부산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제공



### 운영 개요

- 접수기간 : 2026년 2월 23일(월)~3월 13일(금)
- 공연기간 : 2026년 5월 1일(금)~12월 31일(목)
- 공연단체 :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공연규모 및 성격 : 행사 및 단체 특성에 따른 협의로 진행  
※ 단, 특정 종교나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은 신청 불가
- 소요시간 : 40분이내
- 신청가능행사 : 부산지역 부산시민을 위한 행사(복지관 등 문화 필요 계층)  
※ 홈페이지 공고란에 첨부된 <공연 유치 신청서 및 단체별 구성> 필히 참고 후 신청
- 접수방법 : 전자우편 [bsccityart\\_go@bscc.or.kr](mailto:bsccityart_go@bscc.or.kr)  
※ 접수 마감 후 선정 회의를 거쳐 공연 단체, 공연 일정, 프로그램 선정
- 참가비 : 무료(단, 조명, 음향 등 공연 진행에 필요한 시설, 경비는 기관 부담)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051-607-3114

(재)부산문화회관

# 2026년도 하반기 정기대관 안내

## 대상

- 부산문화회관 : 공연장(중극장, 챔버홀), 전시실
-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은 리모델링 공사로 2026년 대관불가
-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챔버홀은 <부산문화회관 정면화 등 유엔평화로 활성화> 공사(부산시 공원도시과 소관)로 인해 오전~오후 시간대 소음 발생이 예상되오니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대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공사일정을 미리 알려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 2026년 1월부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객석 1층 B구역 맨 뒤편에 FOH가 설치 및 운영되오니 대관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 챔버홀은 클래식 전용홀이며 사회자 마이크 외 음향 및 기타 장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산시민회관 : 공연장(대/소극장), 전시실
- 휴관일 안내 :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공연장과 전시실 대관 불가
- ※ 셋업, 철수, 운영 등 작업 불가(대관 시 휴관일은 대관료에 미포함)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중복 접수 불가

## 대관일정

- 대관기간 : 2026년 7월 1일(수)~12월 31일(목) (6개월)
- 대관가능일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대관 공지사항 참조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년 3월 11일(수) 09:00~3월 24일(화)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bscc.or.kr/rental)
- 결과회신 : 2026년 4월 예정

## 대관내용

- 기초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 물품 등 판매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공연(행사) 및 전시는 대관 제외

## 사용료 납부

- 계약금(대관료의 20%) : 시설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 체결
- 잔금 : 공연/전시 예정일 30일 전(대극장 60일 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80% 납부
- ※ 납부기한 내 계약금 미입금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 승인이 자동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취소 이력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사용예정일이 대관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계약금과 잔금 동시에 납부

## 대관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 (재)부산문화회관 대관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 첨부
- ※ 공연/전시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 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장 담당 : 051-607-6075
- 부산시민회관 공연장 담당 : 051-630-5232
- 부산문화·시민회관 전시실 담당 : 051-607-6123

- 대 대극장    캠 챔버홀    아 야외광장
- 중 중극장    사 사랑채극장

### 공지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한 해 대극장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 전시

· 부산미술협회 80주년 기념전  
2월 26일(목)-3월 7일(토)  
(사)부산미술협회 632-2400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http://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p><b>1</b></p> <p>◆ 부산시립극단 어린이뮤지컬 아카데미 '오즈의 마법사' 13:00, 17:00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중</span>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2</b></p>	<p><b>3</b></p>
<p><b>8</b></p> <p>2026 부산 남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제15회 정기연주회 '남구 행복 버스' 19:00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중</span> 무료/부산남구문화재단(608-1535)</p>	<p><b>9</b></p>	<p><b>10</b></p>
<p><b>15</b></p> <p>부산유스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17:00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중</span> 부산유스오케스트라(633-1949)</p>	<p><b>16</b></p>	<p><b>17</b></p>
<p><b>22</b></p> <p>유코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17:00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중</span> 유니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010-2580-1112)</p>	<p><b>23</b></p>	<p><b>24</b></p> <p>이주용 피아노 독주회 '송고의 여정' 19:30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중</span> 초대/부산대학교 음악학과(510-1747)</p>
<p><b>29</b></p>	<p><b>30</b></p>	<p><b>31</b></p> <p>Choi's Duo Concerto 'All the Love in the World'(세상의 모든 사랑) 19:30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캠</span> 전석 2만원/아트락(010-5468-4658)</p>

Wed

THU

FRI

SAT

4

5

6

7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Friendly Concert' 17:00  
☎ 전석 3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서부산교향악단 제1회 정기연주회 19:30  
☎ 전석 1만원  
서부산교향악단(010-8865-1705)

11

12

13

14

로렌조 미켈리 클래식 기타 리사이틀  
'기타로 그리는 밤의 이야기' 20:00  
☎ 전석 4만원/파르티타(02-3471-0017)

◆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세계 클래식 음악산책 I - ITALIA' 19:30  
☎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 14:00  
☎ 5만5천원 4만4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8

19

20

21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9회  
정기연주회 '트랜스: 음악의 현정' 19:30  
☎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프로, 아마, 유스 연합 합동연주회 17:00  
☎ 더뉴앙상블(010-3863-3087)

스트링 콰르텟 창단연주회 17:00  
☎ 아니모앙상블(010-6294-1785)

25

26

27

28

라이온스클라이어 정기연주회  
'We Serve, We Sing!' 19:30  
☎ 초대/이지무스오페라단(010-9550-4649)

신효은 바이올린 독주회 17:00  
☎ 전석 2만원/신효은(010-8408-6580)

-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광장
- 연 연습실    전 전시실

### 전시

· 뱅크시 사진전 [Who is Banksy] by Martinbull'



1월 9일(금)-3월 29일(일)  
전시실 1-2  
일반 1만8천원, 청소년 1만4천원,  
어린이 9천원  
(주)늘품이엔티 1588-2532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http://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p><b>1</b></p> <p>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10:00 대 부산광역시 총무과(888-1855)</p>	<p><b>2</b></p>	<p><b>3</b></p>
<p><b>8</b></p> <p>너의 이름은. 필름 콘서트 15:00 대 10만원-8만원-6만원 (주)필뮤직(010-8675-4559)</p>	<p><b>9</b></p>	<p><b>10</b></p>
<p><b>15</b></p> <p>가족뮤지컬 '멜로우TV_Run it up, 팀나빠' 11:00, 14:00 대 전석 7만원 (주)마당플레이웍스 (02-742-8836)</p> <p>원더매직의 과학마술콘서트 시즌2 11:00, 14:00 소 전석 5만원 원더매직(070-4202-2200)</p>	<p><b>16</b></p>	<p><b>17</b></p>
<p><b>22</b></p> <p>제39회 전국 청소년(유초중고) 무용경연대회 10:30 대 (사)부산무용협회(632-5116)</p>	<p><b>23</b></p>	<p><b>24</b></p> <p>제8회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시낭송대회 13:30 소 (사)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988-2427)</p>
<p><b>29</b></p> <p>가족뮤지컬 '정승제의 수학대모험: 수포자의 비밀' 11:00, 14:00, 16:30 대 전석 7만원 (주)더화랑이엔티(1800-6567)</p>	<p><b>30</b></p>	<p><b>31</b></p>

Wed

THU

FRI

SAT

4

5

6

7

푸르기음악회 '봄이 오는 소리' 14:00

대 전석 6만원  
푸르기예술단(02-547-9851)

제3회 다원첼로양상블 정기공연 15:30

소 다원첼로양상블(010-2086-1779)

11

12

13

14

가족뮤지컬 '멜로우TV\_Run it up, 팀나빠' 11:00, 14:00, 16:30

대 전석 7만원  
(주)마당플레이웍스(02-742-8836)

원더매직의 과학마술콘서트 시즌2 11:00, 14:00

소 전석 5만원  
원더매직(070-4202-2200)

18

19

20

21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19:30

대 10만원·8만원·6만원·5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문화판 모이라 '할딱배기와 히말라야' 19:30

소 전석 3만원  
문화판 모이라(010-9701-0712)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19:30

대 10만원·8만원·6만원·5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문화판 모이라 '할딱배기와 히말라야' 19:30

소 전석 3만원  
문화판 모이라(010-9710-0712)

문화판 모이라 '할딱배기와 히말라야' 15:00

소 전석 3만원  
문화판 모이라(010-9710-0712)

25

26

27

28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 풍류' 19:30

대 2만원, 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가족뮤지컬 '정승제의 수확대모험: 수포자의 비밀' 11:00, 14:00, 16:30

대 전석 7만원  
(주)더화랑이엔티(1800-6567)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인사이드 미' 14:00, 17:00

소 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데뷔 70주년을 맞은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4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금액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음악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끝없는 탐구심으로 ‘건반 위의 구도자’라 불리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올해는 그가 열 살(1956년)의 나이로 김생려가 지휘하는 해군교향악단(현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로 데뷔한 후 7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 건반 위의 구도자 데뷔 70주년을 맞다

1946년 서울에서 태어난 백건우는 데뷔 무대 후 이듬해 자신의 이름을 건 연주회에서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을 한국 초연으로 선보여 큰 관심을 모았다. 15세에 콩쿠르 참가를 위해 처음 미국으로 건너가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러시아 피아니즘의 계보를 잇고 있는 로지나 레빈을 사사했다. 1969년 부조니 국제콩쿠르에서 ‘장래가 기대되는 피아니스트’라는 심사평과 함께 금상을 수상한 백건우는 1971년 뉴욕 나움부르크 콩쿠르에서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으며 같은 해 뉴욕 링컨센터 엘리스 툴리홀에서 독주회를 개최했다. 이듬해인 1972년에는 링컨센터에서 라벨의 피아노 독주곡 전곡을 연주하며 뉴욕타임즈 등 주요 매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유럽으로 활동무대를 넓혀 1974년 런던 위그모어홀, 1975년 베를린 필 하모니홀 등에서 독주회를 열었으며, 1987년 BBC 프롬스 폐막무대에 초청받아 BBC 심포니와 협연했다. 1992년 스크랴빈의 피아노 작품집으로 디아과종상을 수상한데 이어 1993년에는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집으로 디아과종상을 포함한 프랑스 3대 음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다.

### 베토벤부터 모차르트까지 끊임없는 탐구를 이어오다

백건우는 2007년과 2017년, 8일 동안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 리사이틀 무대를 선보여 호평받았으며, 2019년에는 쇼팽의 녹턴 전곡 음반을 발매하며 15개 도시에서 ‘백건우와 쇼팽’ 리사이틀 투어를,

2020년에는 슈만 신보 발매와 함께 ‘백건우와 슈만’ 리사이틀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022년에는 스페인 작곡가 엔리케 그라나도스의 대표곡과 그의 유작 오페라 ‘고에스카스’를 담은 신보 발매를 앞두고 ‘고에스카스’의 영감이 된 화가 고야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 산 페르난도 왕립미술원에서 리사이틀을 가졌으며 같은 해, 발매된 음반과 함께 전국 리사이틀 투어를 통해 한국 관객들에게 그만의 그라나도스를 소개했다. 2024년에는 생애 첫 모차르트 앨범을 발매한 후 2년간 전국 30여 개 도시에서 관객과 만나며 그가 탐구한 모차르트의 음악과 인생을 무대 위에 풀어내기도 했다. 또한 앞서 데뷔 60주년이던 2016년에는 60년 연주 인생의 동반자였던 관객들을 향한 감사의 뜻을 담아 청중의 사연과 신청곡을 공모로 선정했던 리사이틀 ‘백건우의 선물’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백건우는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적 업적을 인정받아 ‘예술 문화 기사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2023년에는 제6회 성정예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슈베르트와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

백건우가 이번 리사이틀에서 선택한 작곡가는 바로 프란츠 슈베르트다. 2026년 3월 발매 예정인 슈베르트 신보와 궤를 같이하는 무대로,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13번과 제20번, 그리고 브람스의 ‘네 개의 발라드 작품 10’으로 구성된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건반 앞에서 끊임없는 사유와 탐구를 이어온 백건우에게 이번 무대는 단순한 리사이틀이 아닌, ‘슈베르트를 통해 인간과 음악의 본질을 마주하는 시간’이다. 슈베르트가 남긴 순수와 고백,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 도달한 깊은 명상은 오랜 시간 예술의 의미를 탐색해온 그의 삶과 자연스럽게 겹쳐진다. 이번 공연은 백건우가 오롯이 ‘슈베르트의 언어’로 청중과 대화하며, 음악이 품은 진실한 침묵과 울림을 들려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 거장의 회고가 아닌 끊임 없는 탐구의 현재형

백건우는 2026년 3월 발매를 앞둔 슈베르트 앨범과 함께 이 무대를 준비하며, 오랜 시간 품어온 사유의 결을 건반 위에 펼쳐낸다. 백건우에게 슈베르트는 화려함이나 기교의 상징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는 존재다. 그의 음악에는 빛과 어둠, 삶과 고독, 희망과 체념이 공존하며, 단 한 음을 올리더라도 그 안에 '삶의 깊이'가 배어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제13번과 제20번을 중심으로, 그의 청년기와 말기를 잇는 '삶의 두 장면'을 한 무대에 담는다. 제13번의 투명한 서정은 젊은 슈베르트가 바라본 순수과 생의 찬란함, 제20번의 장대한 구조와 명상적 울림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낸 내면의 평화를 그려낸다. 이 두 작품을 하나의 호흡으로 엮어내며 백건우는 슈베르트의 음악 안에 담긴 인간 존재의 여정을 들려준다.

데뷔 70주년을 맞이한 지금에도 여전히 새로운 작곡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백건우의 발걸음은 '거장의 회고'가 아니라 '끊임 없는 탐구의 현재형'이다. 슈베르트는 그에게 단순한 레퍼토리가 아니라, 인생 후반부에 선 예술가가 다시 마주한 깊은 내면의 그림자이자 빛이다.

## 슈베르트와 브람스, 낭만의 두 축을 잇는 여정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 외에도 브람스의 작품이 포함되어 낭만주의의 두 축을 조망한다. 무대의 서막을 여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13번 가장조 D.664'은 '소나타 중의 소나타'라 불릴 만큼 맑고 투명한 서정으로 사랑받는 작품이다. 젊은 시절의 슈베르트가 남긴 이



©Brice Toul

곡은 그만의 순수한 선율감과 청아한 울림을 담고 있으며, 삶의 환희와 빛을 그대로 건반 위에 그려낸 듯한 투명함이 돋보인다. 백건우가 추구해 온 음악적 태도와도 맞닿아 있는 곡으로, 그가 걸어온 긴 여정을 다시 순수의 자리에서 출발하게 만드는 듯한 의미를 지닌다.

이어지는 곡은 브람스의 '네 개의 발라드 작품 10'이다. 스물 한 살의 청년 브람스가 괴테의 시와 북유럽 민속 전설에서 영감을 받아 쓴 이 곡들은 고전적인 형식 속에서도 낭만적 서정과 내면의 성찰을 동시에 담아낸다. 단순한 기교를 넘어 음악가의 내면과 시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이 발라드들은 백건우가 늘 강조해온 '생각하는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레퍼토리라 할 수 있다. 슈베르트의 청아한 서정에서 브람스의 무겁고 사색적인 세계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낭만주의가 지닌 다층적인 스펙트럼을 한 무대에서 확인하게 한다.

무대의 대미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20번 가장조 D.959'가 장식한다. 후기 슈베르트의 대표작인 이 곡은 장대한 구조 속에 서정과 걱정, 명상과 환희가 교차하며,

슈베르트가 생의 마지막 시기에 도달한 음악적 절정을 보여준다. 백건우가 데뷔 70주년을 맞아 이 곡을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나열이 아니라 그가 음악가로서 걸어온 길과 지금의 사유가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무대는 결국 슈베르트의 청년기와 말기, 그리고 브람스의 젊은 시절을 아우르며 낭만주의의 흐름을 꿰어낸다. 순수에서 출발해 사색으로, 다시 장대한 서사로 이어지는 이 여정은 단순한 연주회가 아닌, 음악가 백건우가 낭만주의를 통해 관객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철학적 탐구가 될 것이다.

### 슈베르트로 만나는 현재형의 예술

이번 리사이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백건우가 슈베르트의 음악을 대하는 태도이다. 그는 작품을 ‘연주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긴 시간 음악과 함께 살아온 예술가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고요한 집중 속에서 작품의 본질을 다시 여는 방식을 택한다. 슈베르트의 선율은 그의 손끝에서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으로 흐르며, 악보 너머의 침묵과 숨결까지 드러낸다. 백건우의 해석은 강렬한 표현이나 외적 장식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음과 음 사이의 공간, 여백의 호흡, 그리고 건반 위에서 조용히 깨어나는 감정의 미세한 결들이 중심이 된다. 이 절제된 표현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더욱 깊어진 그의 음악적 언어이며, 바로 이 무대가 ‘회고’가 아닌 ‘현재형의 예술’로 존재하는 이유이다.

특히 백건우가 추구하는 음악의 방향성은 ‘정답을 찾아가는 연주’가 아니라, 작품과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가깝다. 그는 악보를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 안에 숨겨진 정서의 결을 읽어내고 현재의 감각과 삶의 체험을 더해 음악으로 되살린다. 이러한 태도는 작품의 해석을 고정된 완성물로 두지 않고, 매 순간 변화하는 ‘살아 있는 예술’로 확장한다. 슈베르트와 브람스는 그의 손끝에서 과거의 텍스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대 위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로 존재한다.

그의 연주 속에서 들리는 슈베르트는 더 이상 과거의 음악이 아니며, 지금 이 무대에서 백건우가 살아가는 방식과 세계를 보여주는 언어가 된다. 이번 공연은, 거장의 손끝에서 오늘의 슈베르트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목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 슈베르트에서 다시 시작되는 여정

데뷔 7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백건우의 음악적 여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의 발걸음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회고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조용히 확장되고 있다. 그런 그가 슈베르트의 세계 앞에 서는 일은 단순한 레퍼토리 선택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에 다다른 예술가가 다시금 스스로를 비추는 고백의 순간에 가깝다. 슈베르트의 음악 속에 스며 있는 고독과 순수,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의 층위는 백건우가 평생 추구해온 예술적 철학과 깊이 맞닿아 있다.

이번 무대는 2026년 발매될 슈베르트 신보와도 맞물리며, 백건우가 새로운 시대에 어떤 음악 세계를 남기고자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다. 모차르트 3부작을 통해 구조와 투명성의 미학을 탐구했던 그는 다시 슈베르트로 시선을 돌려, 보다 깊고 내밀한 고백의 세계로 들어선다. 이는 과거의 성취를 반복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스스로의 예술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갱신하려는 그의 고유한 탐구 정신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기념 공연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에서 그가 어떤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지를 조용히 선언하는 자리이다. 슈베르트와 브람스라는 두 개의 내적 풍경을 통해, 백건우는 다시 한 번 스스로에게 묻고 관객에게 답한다. 무엇이 음악을 움직이게 하는가? 그리고 예술가는 어디로 나아가는가? 이 질문의 여정에 관객도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다.

# 피와 욕망, 권력에 눈먼 자들의 광기 연극 칼로막베스



# 칼로막베스



일시	4월 4일 토요일 오후 3:00 4월 5일 일요일 오후 3: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출연	막베스 : 김호산 막베스 妻 : 원경식(4일), 김준수(5일)
금액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원작으로 한 고선웅 연출의 무협액션극 ‘칼로막베스’가 부산을 찾는다.

특히 이번 무대는 연출가 고선웅의 극공작소 마방진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기념무대로, 지난 2010년 서울국제공연 예술제에서 초연된 후 그 해 동아연극상 작품상과 연출상을 받으며 평단과 관객의 극찬을 받은 작품이다. ‘칼로막베스’는 이듬해에 중국 베세토연극제와 벨라루스 국제연극제, 튀르키예와 칠레 산티아고 아밀 페스티벌 등에 초청되며 해외무대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칼로막베스’는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통소소리’, ‘변강쇠 점 찍고 응녀’ 등을 연출한 고선웅 특유의 말맛과 리듬감, 위트가 살아 있는 작품으로, 원작의 중세 스코틀랜드를 범죄자들이 우글거리



는 디스토피아적 미래 '세렝게티 베이'로 옮겨왔다. '칼로 상대를 막 베어버린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제목으로, 권력과 생존을 위해 칼을 든 인간들의 욕망과 폭력성을 한국적 감성과 강렬한 신체적 리듬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유머와 슬랩스틱, 비극과 광기가 뒤섞이며, 칼싸움의 리듬과 배우들의 육체가 빚어내는 생생한 긴장감은 관객들을 압도한다. 폭력과 낯것의 욕망이 난무하는 역동적인 무대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덧없는 욕망과 권력의 무상함이 선명히 드러난다.

연출가 고선웅은 199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우울한 풍경속의 여자'로 연극계에 데뷔, 2005년 극공작소 마방진을 창단한 후 '회란기', '낙타상자', '리어왕외전', '칼로막베스', '홍도', '푸르른 날에', '마리화나', '강철왕', '락

희맨쇼' 등을 쓰고 연출하며 연극계에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뮤지컬 '베르테르', '광화문연가', '아리랑', '광주', 창극 '귀토', '변강쇠 점 찌고 옹녀', '홍보씨', 소리극 '서편제; The Original', 오페라 '1945', '맥베스' 등 장르를 넘나드는 작업을 통해 관객이 믿고 보는 작가 겸 연출가로 자리매김하였다. 2015년 국립극단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으로 동아연극상, 대한민국 연극대상 등 국내 주요 연극상을 석권하였고 2019년 이해랑연극상에 이어 2025년에는 '통소소리'로 백상예술대상 연극상을 받았다. 고선웅은 빠르지만 리듬감 있는 대사, 신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양식적 연기 그리고 비극조차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화법 등으로 현재 한국 연극계가 가장 사랑하는 극작가이자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 고선웅표 연극의 분기점이 되다

### 초연 이후 16년 만에 돌아오는 ‘칼로막베스’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한국 연극의 역사와 비례해 수많은 극단이 명멸을 거듭해 왔다. 다만 지난 20년간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온 극단을 꼽으라면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극단으로 범위를 좁히면 극소수에 불과하다.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은 극공작소 마방진(이하 마방진)이야말로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극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방진은 현재 한국 연극계에서 손꼽히는 극작가 겸 연출가 고선웅이 2005년 설립했다. 원래 마방진은 숫자의 합이 사방으로 일치하는 정교한 진법을 가리킨다. 이것을 극단 이름으로 정한 것은 배우의 개별적인 감성이나 편차에 상관없이 작품 전체의 완성도와 합(合)은 언제나 같아야 한다는 고선웅의 신념 때문이다.

1999년 희곡 <우울한 풍경 속의 여자>가 국민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고선웅은 같은 해 <락희맨쇼>를 통해 극작가로 연극계에 데뷔했다. 그리고 <이발사 박봉구> 등에서 촌철살인의 재기와 입담을 보여주는 이야기꾼으로 주목받는 한편 창작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선 뛰어난 각색 및 작사 실력을 뽐냈다.

틈틈이 연출도 하던 고선웅은 아예 마방진을 만들어 자신의 작품을 직접 선보이기 시작했다. 고선웅이 2010~2014년 경기도립극단과 2022~2025년 서울시극단 예술감독을 역임할 때도 마방진은 단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 그리고 <들소의 달> <칼로막베스> <홍도> <낙타상자> <회란기> 등 마방진이 선보인 작품들은 국내 유수의 연극상을 자주 받았다.

마방진이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아 고선웅과 함께 1년간 기념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극단다운 극단적인 연극’을 모토로 한 올해 라인업은 <칼로막베스>(2~4월 3개 도시)를 시작으로 <리어왕외전>(3~4월 서울), <홍도>(4~6월 8개 도시), <낙타상자>(10월 대구) 등 레퍼토리 4편과 가족극 <토끼전>(1~2월 3개 도시) 그리고 신작 <투신>(11월 서울)과 <찾집>(12월 서울) 등 총 7편이다.

2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공식 개막작 <칼로막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를 고선웅이 각색 및 연출해 지난 2010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초연했다. 창단 이후 처음 도전한 셰익스피어극으로, 고선웅이 마방진 단원들과 보름간의 합숙과 5개월간의 연습을 통해 만들었다.

‘칼로 막 벤다’는 뜻과 ‘맥베스’의 유사한 발음을 활용한 제목처럼 <칼로막베스>는 유장한 대사극인 원작을 스타일리쉬한 무협액션극으로 변주했다. 극이 전개되는 공간은 원작의 중세 스코틀랜드 대신 디스토피아적 미래의 거대한 범죄자 수용소 세렝게티 베이. 구제불능의 죄수들과 그 후손들을 영원히 격리 및 도태시키기 위해 경찰정부가 만든 무법지대다. 죄수들은 경찰정부가 쥐어준 칼로 끝없는 다툼을 이어간다.

배경이 바뀌고 맥베스 부인(극에선 막베스 처)을 남자배우에게 맡겨 권력욕을 한층 강렬하게 표현하는 등 캐릭터 변화가 있지만, <칼로막베스>의 핵심 줄거리는 원작을 따른다. 대신 인간의 욕망을 날것 그대로의 검술과 액션으로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원작의 묵직하고 현학적인 독백 대신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대사, 칼을 휘두르는

가운데 보여주는 영똥한 코미디가 관객에게 웃음을 준다. 원작의 비극성이 유지되면서도 관객이 작품을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고선웅만의 해석도 눈길을 끈다. 원작에선 세 명의 마녀가 등장하는데 비해 <칼로막베스>에는 한 명의 맹인술사나와 막베스가 보스 자리에 오를 것을 예언한 뒤 후반부에 목탁을 두드리는 승려가 등장해 마녀와 대화를 나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막베스가 들은 맹인술사의 예언은 스스로의 욕망이 만들어낸 백일몽이라는 것이 암시된다. 또한 막베스만이 아니라 막베스에게 복수하는 사람들 역시 권력욕에 잠식됐다는 것을 드러낸다. 승려가 읊는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空卽是色)’ 구절은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허망하고 덧없다는 동양적 해석을 보여준다.

마방진이 올해 20주년 프로젝트의 시작을 <칼로막베스>를 정한 것은 고선웅의 연극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칼로막베스>는 2010년 동아연극상 작품상과 연출상을 받은 뒤 2011년 중국 베세토연극제, 벨라루스 국제연극제, 터키 앙카라 등에 초청됐다. 마방진 작품으로는 처음 해외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무엇보다 연출가로서 노련한 각색과 놀이의 활용이라는 고선웅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작품으로서 의미가 크다.

고선웅은 마방진을 설립하며 ‘마술적 리얼리즘’을 무대에 직접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원래 중남미 문학의 특성으로 언급되던 마술적 리얼리즘은 일상적 현실에 초자연적이거나 환상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융합해 묘사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고선웅에게 <강철왕> <마리화나> <팔인> <들소의 달> 등 창단 이후 발표한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만화적 상상력, 스펙터클한 장면 구성, 양식적인 연기 등 기존의 사실주의 연극과 차별되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연극적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드라마를 비틀면서 말장난 같은 대사로 관객을 웃게 만드는 것도 고선웅만의 특징이다. <칼로막베스>는 그런 고선웅의 스타일이 장난스럽다는 인식을 넘어 평단이나 관객에게 제대로 인정받은 첫 작품이다.

<칼로막베스>의 성공은 국내 공공극장이 고선웅에게 잇따라 작품을 위촉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11년 신시컴퍼니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가 공동제작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소재 <푸르른 날>의 각색 및 연출을 고선웅이 맡은 것은 중요하다. 고선웅은 비극적인 역사를 신파적이지 않게 풀어내며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담았다. 수많은 연극상을 휩쓴 <푸르른 날>은 5월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잡아 5년간 무대에 올랐다.

고선웅은 2010~2015년 경기도극단 예술감독을 역임하는 동안 관객들이 쉽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대중극’에 천착했다. 당시 수도권에서조차 연극을 평생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푸르른 날>에 대해 ‘명랑하게 과장된 통속극’으로 규정하며 대중극의 가치를 재정립한 고선웅은 1930년대 대표적 신파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재해석한 <홍도>를 내놓았다. 올해 20주년 기념 프로젝트에도 포함된 <홍도>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촌스럽지 않은 연출로 신파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어 2014년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와 2015년 국립극단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비극성 강화를 위한 놀이, 과장된 신체적인 움직임, 빠르지만 리듬감있는 화술, 희화화된 캐릭터, 사려깊은 현대적 성찰 등 고선웅 스타일의 완성을 보여준다. 마방진 창단 10주년이던 2015년 즈음부터 ‘연극은 놀이’라는 고선웅의 연극관도 정립됐다. 이후 고선웅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손을 대는 작품마다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 불러일으키며 한국 연극계의 간판 연출가로 자리매김했다.

고선웅과 함께 한국 연극에 뜨거운 에너지를 제공했던 마방진이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초연 이후 16년 만에 돌아오는 <칼로막베스>는 초심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멈추지 않는 고선웅과 마방진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 특히 이번에 막베스 처로 국립창극단 간판 스타였다가 올해 프리랜서를 선언한 김준수의 출연은 관객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예정이다.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 Friendly Concert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우정과 열정이 넘치는 ‘Friendly Concert’로 2026년 첫 무대를 연다. ‘Friendly Concert’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2003년부터 전국의 소년소녀합창단과 교류하며 합창을 통한 우정을 쌓아오고 있는 무대로, 올해는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금정구소년소녀합창단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우정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1973년 창단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수석지휘자 천경필과 50여 명의 단원들이 수많은 연주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합창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홍콩, 독일, 스웨덴,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등 해외에서의 연주회를 통해 부산,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활약하고 있다.

박의영 예술감독이 이끄는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6년 창단 후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제2회 동아시아합창대회 금메달, 제7회 세계청소년합창경연대회(2025) 예술총감독 특별상 및 민속부문 금메달, 일반부문 은메달, 그리고 제21회 부산국제합창제(2025)에서 국내팀으로는 유일하게 청소년부문 3위 및 Gold Diploma를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금정구에 거주중인 초등 및 중학생으로 구성된 금정구소년소녀합창단은 2022년 창단된 후 지휘자 우원석과 함께 금정구를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정기연주회 외에도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필 하모니와의 협연, 부산국제공연예술제 개막식, 부산교통공사 주최 청소년 합창제, 2030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유치찬란 축제 등 국제적인 행사에도 초청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금정구소년소녀합창단이 남아공 줄루족의 민요인 ‘Aya ngena’를 시작으로 창작곡인 ‘오늘은 내가 주인공’(박진행 곡), ‘성장통’(윤학준 곡), 그리고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 수록곡인 ‘하쿠나 마타타’에 이어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추억의 애니메이션 영화 ‘날아라 슈퍼보드’ 수록곡인 ‘치키 차카 초코 추!’, 이현철 곡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스윙재즈의 대표곡인 ‘Sing Sing Sing’, 윤학준 곡 ‘함께’, 그리고 뮤지컬 ‘페임’의 주제곡인 ‘Fame’으로 관객과 만난다. 부산시립합창단은 플라크의 ‘Ave Verum Corpus’, 아담스의 ‘Exsultate Justi in Domino’ 등 종교 합창곡과 ‘활짝 웃어 보아요’(정성우 곡), ‘꿈을 향해 날아’(강현나 곡), ‘Smile again’(손민혜 곡) 등 국내 창작곡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세 합창단의 연합 합창으로 윤학준 곡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로 관객과 합창으로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지휘 천경필



지휘 박의영(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 우원석(금정구소년소녀합창단)



3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3천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1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객원지휘자 홍석원의 깊이 있는 해설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는 고품격 무대,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객들 곁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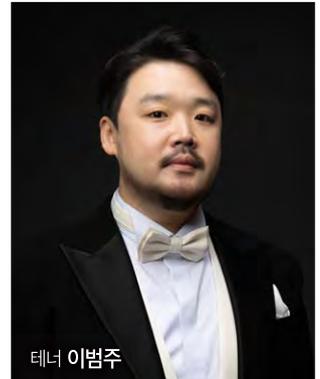
퇴근 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저녁 시간의 클래식 여행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은 공연마다 세계 각국을 테마로 한 레퍼토리를 통해 음악으로 세계를 산책하듯, 일상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클래식의 순간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올해 그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로 열정과 낭만이 살아 숨 쉬는 이탈리아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수석객원지휘자 홍석원의 유쾌하고 친절한 해설이 함께 하면서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음악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첫 곡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베르디의 오페라 매력이 집약된 '나부코' 서곡으로, 그의 오페라 서곡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명곡이다. 이어서는 베르디 이후 가장 중요한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인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 '레콘디타 아르모니아', '별은 빛나건만'을 테너 이범주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이탈리아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로 평가받는 푸치니의 오페라는 깊은 감성과 풍부한 오케스트레이션, 잊을 수 없는 멜로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고 있다.

협연자 이범주는 세계적인 성악콩쿠르인 베르디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이탈리아 파르마 베르디 페스티벌에서 오페라 '아이다'의 라메다스 역으로 데뷔,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국내에서는 바그너의 '탄호이저'로 성공적인 데뷔를 가진 후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 세종문화회관, 성남아트센터, 대구 오페라하우스 등에서 다수의 오페라에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현재는 국립창원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어서는 푸치니에게 생애 첫 성공을 안겨준 오페라 '마농 레스코' 간주곡에 이어 테너 이범주가 푸치니 최후이자 최고의 오페라로 사랑받는 '투란도트' 중 대중적으로도 너무나 유명한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가장 이탈리아적인 오페라로 꼽히는 마스카니 오페라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에 이어 차이콥스키가 이탈리아 여행에서 받은 인상을 바탕으로 구상한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인 '이탈리아 기상곡'을 연주한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의 두 번째 여정은 5월 13일 관객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3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첼로 홍진호

© Sangwook Lee



보컬 박현수

© Sangwook Lee



재즈 피아노 조윤성



베이스 션 펜트랜드



드럼 석다연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

화이트데이에 만나는 영화같은 순간, '시네마 파라디소(Cinema Paradiso)'가 3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시네마 파라디소'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작 영화 속 음악들을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편곡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화이트데이를 맞아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영화 같은 하루를 꿈꾸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는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한다. JTBC '슈퍼밴드' 우승자이자 장르를 넘나드는 첼리스트 홍진호, '팬텀싱어 3' 3위팀인 '레떼아모르'의 멤버이자 '복면가왕' 가왕 출신으로 감미로운 목소리를 자랑하는 보컬 박현수, 그리고 세계적인 거장 허비 행콕이 인정한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을 주축으로, 세계 유수의 재즈 무대에서 활약 중인 베이스리스트 션 펜트랜드와 드러머 석다연이 합세하여 5인조 앙상블의 완성도 높고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여기에 단순한 연주회를 넘어 아티스트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토크가 곁들여져 관객들과 더욱 깊게 교감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첼리스트 홍진호는 클래식을 기반으로 밴드 음악, 재즈, 창작까지 넘나들며 활동 영역을 확장해 온 연주자로 '비긴어게인', '열린음악회', '유희열의 스케치북', '스페이스 공감' 등 주요 방송과 페스티벌 무대에서 활약해오고 있다. 박현수는 클래식 성악을 기반으로 팝, 재즈, 영화음악 등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보컬리스트로, 다양한 무대에 오르며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은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세계적인 뮤지션으로, 프랭크 시나트라 밴드 수석 피아니스트와 할리우드 뮤지션스 인스티튜트 교수로 활동했고, 베이스리스트 션 펜트랜드는 앙상블 카두시우스 음악감독으로 작곡·편곡까지 아우르는 올라운더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다. 석다연은 버클리 음대와 뉴욕대에서 수학한 드럼 연주자로 다수의 해외, 국내 아티스트들과 협연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세계 영화팬들과 음악팬들이 사랑하는 작곡가 엔리코 모리꼬네의 영화음악 메들리를 비롯하여 2017 골든글로브, 아카데미를 휩쓴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와 개봉한 지 60년이 지난 현재에도 고전의 반열에 올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명작 '사운드 오브 뮤직', 그리고 음악영화의 신기원을 연 영화 '윈스'까지 시대를 초월한 명작 속 대표곡을 만날 수 있다.

**3월 14일 토요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광주시립합창단 교류연주회

## Friendly Concert

영호남을 대표하는 부산시립합창단과 광주시립합창단이 부산과 광주에서 교류연주회를 갖는다. 3월 12일 광주 공연에 이어 17일에는 부산 서부산권 최초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인 낙동아트센터에서 동일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이번 무대는 합창을 통해 영호남의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문화 이해와 공감을 넓히기 위한 무대로, 두 합창단의 수준 높은 연주 역량과 음악적 완성도로 합창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1부에서는 상임지휘자 임창은이 이끄는 광주시립합창단이 현대 합창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미국 작곡가 제이크 루네스테드의 'Ritual', 경상도 민요 '뱃노래-자즌 뱃노래'를 토대로 작곡된 전경숙 곡 '뱃노래'를 들려준다. 1976년 시민합창단으로 태동,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은 광주시립합창단은 그동안 타 시도와의 문화교류에 앞장서오며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연주회를 통해 합창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오고 있다. 이어서 부산시립합창단은 현 시대 합창 음악을 대표하는 라트비아 출신의 작곡가 에릭 에센발즈의 주요곡인 'A Drop in the Ocean', 'The Time Has Come'을 들려준다.

2부에서 광주시립합창단은 영화 '록키3'의 주제곡인 'Eye of the Tiger', 영국의 팝 듀오 웬(Wham!)의 첫 빌보드 차트 1위곡인 'Wake Me Up Before You Go-Go',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스윙재즈의 대표곡인 'Sing, Sing, Sing' 등 우리 귀에 친숙한 대중적인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반면 부산시립합창단은 인종차별에 맞선 흑인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저항가요 'Senzeni Na', 아랍어 인사이기도 한 'Ahlan Wa Sahlan'(Kyle Pederson 곡), 스와힐리어로 '예수의 탄생(Amezaliwa)'이라는 뜻을 지닌 찬송곡 'Amezaliwa Tushangilie'(Robert Jim Begisen 곡) 등 타 무대에서는 만날 수 없는 다채로운 현대합창곡을 선사한다. 부산시립합창단의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페스티벌기타양상블 상임지휘자이자 폴리포니기타듀오 멤버로 활동중인 기타리스트 김경태, 베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팀파니 수석 이성하가 함께 한다.

부산시립합창단과 광주시립합창단의 합동무대로 꾸며지는 3부에서는 남아프리카의 문화와 신앙을 전하는 합창곡 'Indodana'와 외로움과 어려움을 사랑으로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담은 '우리'(신상우 편곡)를 통해 깊은 감동을 전한다.



지휘 이기신



지휘 임창은



기타 김경태



피커션 이성하

**3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9회 정기연주회

# 트랜스: 음악의 헌정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재즈 피아니스트 정지수와 함께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9회 정기연주회가 3월 1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수석지휘자 백승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바로크부터 동시대음악, 그리고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을 통하여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의 유산과 그 이후의 음악을 여러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연주되는 카푸스틴과 페르트의 음악은 국내 초연으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진취적 방향과 향상된 기량을 엿볼 수 있다.

첫 곡은 만년의 바흐가 대위법 예술의 정수를 탐구한 작품집인 ‘음악의 헌정 BWV 1079’ 중 베베른이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6성부의 리체르카레’로, 베베른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인 극도의 간결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니콜라이 카푸스틴의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작품 56’은 클래식 음악의 형식과 양식에 재즈 음악의 자유로운 정신을 녹여내는 카푸스틴의 독특한 개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재즈의 언어를 펼치며 그만의 고유한 색으로 소통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정지수가 협연한다.

정지수는 2024년 한국-캐나다 문화 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문화체육관광부, KOFICE, 자라섬 페스티벌이 공동 주관한 프로젝트의 한국인 대표 창작인으로 선정됐으며, 2024년 월간 잡지사 MM Jazz [Who am I] 올해의 베스트 앨범 선정, 미국 시카고의 라비니아 국제 음악 페스티벌 주최 ‘Bridges International Composer’s Competition’ 한국인 최초 우승, 미국의 저작권 협회 ‘ASCAP Herb Alpert Young Jazz Composer’s Award’ 작곡가 상 수상 등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려나갔다. 현재는 정지수 챔버 오케스트라와 앙상블 ‘Baroque in Blue’의 리더로 청중들과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이어서는 스트라빈스키의 ‘폴치넬라’ 모음곡과 페르트의 ‘만약 바흐가 별을 키웠다면...’(2021년판)을 들려준다. ‘폴치넬라’는 스트라빈스키가 신고전주의에 처음 도전한 중요한 작품으로, 다른 작곡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준 작품이다. 소련 당국의 비공식적인 박해를 받으며 활동을 중단했던 페르트가 오랜 침묵을 깨고 작곡한 ‘만약 바흐가 별을 키웠다면...’(2021년판)은 그가 피난처로 삼았던 바흐를 상징하는 음형(Bb-A-C-B, 독일어 표기로는 B-A-C-H)이 여기저기서 등장하는데, 무질서해 보이지만 실은 고도의 질서와 암호가 담긴 별들의 움직임을 음악에 비유하고 있다.



지휘 백승현



피아노 정지수



3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발레이자 발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 '백조의 호수'가 부산을 찾는다.

특히 이번 '백조의 호수'는 러시아 볼쇼이발레단의 대표 안무가인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재해석한 버전으로, 지난 2001년 초연부터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 온 국립발레단의 작품으로 선보인다. 유리 그리고로비치 버전의 '백조의 호수'는 악마 로트바르트의 저주로 낮에는 백조, 밤에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오데트 공주와 그녀를 사랑하게 된 지그프리트 왕자의 운명적 사랑을 서정적 이면서도 극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백조의 호수'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버전으로 공연되는데 비극적 결말과 해피엔딩 두가지 버전으로 나뉜다. 이번 국립발레단 버전은 '진정한 사랑이 운명을 이긴다'는 메시지를 담은 해피엔딩으로, 특히 이 결말은 국내 초연 당시 그리고로비치가 한국 관객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특별히 구성한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백조의 호수'는 '호두까기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함께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음악으로 사랑받고 있다. 여기에 백조의 날갯짓을 형상화한 우아한 안무와 호숫가에서 펼쳐지는 입체적인 군무는 '발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손꼽힌다. 작품은 성인이 된 지그프리트 왕자가 생일 파티 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숲속 호숫가로 향하고, 그곳에서 저주에 걸린 오데트 공주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로 펼쳐진다.

호숫가에서 처음 만난 오데트 공주와 지그프리트 왕자가



사랑에 빠지는 1막 2장 '아다지오 파드되'에 이어 오데트 공주인 척 왕자를 유혹하는 1인 2역의 흑조 오딜로의 연기력과 테크닉이 돋보이는 2막 1장 무도회 장면은 이 작품에서 주요 관람 포인트로 꼽힌다. 또한 인간 내면의 선과 악을 강조하기 위해 악마 로트바르트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한 점도 눈길을 끈다. 1막 중반, 로트바르트가 왕자의 무의식 속 어둠의 존재로 등장해 함께 추는 '그림자 춤(The Shadow Dance)'은 이번 작품의 특징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여기에 24명의 무용수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백조 군무와 네 명의 발레리나가 서로 손을 잡은 채로 처음부터 끝까지 춤을 추는 네 마리 백조, 헝가리·러시아·스페인·나폴리·폴란드 각 나라 특유의 민속무용을 감상할 수 있는 '다섯 나라 공주의 춤' 또한 이번 공연의 큰 볼거리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962년 창단된 대한민국 최초의 직업 발레단으로, 국내 최정상 무용수들과 세계 유명 작품들을 레퍼토리로 보유하며 국내외 발레의 예술적 발전과 대중화를 선도해오고 있다.

3월 19일-20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5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9회 정기연주회 축제

음악으로 하나되는 축제,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9회 정기연주회가 부산의 새로운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과 낙동아트센터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객원지휘자 홍석원이 지휘하고 유럽 클래식계가 주목하는 슈퍼 루키, 바이올리니스트 요한 달레네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북유럽의 강렬한 서정과 기교가 빛나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과 쇤베르크의 관현악 편곡으로 새롭게 태어난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제1번'이 무대에 오른다.

첫 곡인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은 그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화려한 기교 속에 북유럽 특유의 차가운 정서와 내면의 열기가 교차하는 곡이다. 이번 무대에서 협연을 맡은 요한 달레네는 2019년 칼 닐센 국제 콩쿠르 우승 이후 탁월한 음색과 존재감으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연주자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그동안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스톡홀름 왕립 필하모니,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케네디 센터, 위그모어 홀, 카네기 홀 등 주요 공연장에서 연주해 왔다. 요한 달레네는 '단순한 비르투오소를 넘어 하나의 목소리를 지닌 연주자(Diapason)',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거장처럼 노래하게 만든다(Le Monde)'는 찬사처럼, 진솔한 음악성과 깊이 있는 음색으로 청중과 평단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22년에는 그라모폰의 '올해의 영 아티스트'로 선정됐으며, 닐센-시벨리우스 협주곡 음반으로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와 스웨덴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쇤베르크가 1937년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한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제1번'은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곡으로, 원곡 자체가 풍부한 오케스트라적 음향을 자랑하고 있기에 브람스 '교향곡 제5번'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특히 브람스의 후예를 자처했던 쇤베르크가 브람스의 작곡 의도와 음악적 어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율, 리듬, 화성은 원곡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율 하나하나에 다양한 악기를 추가하고 다채로운 연주기법을 도입하여 더욱 생동감 넘치고 풍성한 느낌을 살렸다. 4악장 구성이며, 타악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집시풍의 격정적인 마지막 악장이 유명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3월 26일 부산콘서트홀에 이어 4월 1일에는 서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인 낙동아트센터 무대에 오르면서 그동안 거리가 멀어 공연장을 자주 찾지 못했던 서부산권 시민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지휘 홍석원



바이올린 요한 달레네



3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콘서트홀  
4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합동교류연주회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영남 風流

영남 지역에 뿌리내린 전통 음악의 정서와 오늘의 감각을 조화롭게 풀어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특별한 무대 ‘영남 風流’가 3월 2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경상남도 유일의 전문 시립국악단체인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합동 무대로, 영남 문화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부산과 진주, 두 도시가 국악을 매개로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지역 간 예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이건설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관현악곡을 비롯하여 가야금병창, 경기민요, 사물놀이 등 다양한 창작곡을 두 악단의 합동 연주로 선보인다.

첫 곡으로는 임진왜란 당시 김시민 장군과 함께 진주성을 지켜낸 ‘그날’의 역사적 순간을 국악관현악으로 담아낸 ‘Root-영원한 울림’(이창희 곡)을 연주한다. 이어서는 가야금 병창을 중심으로 음악 장르를 넘나들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풍류랑’이 판소리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방아타령’을 주제로 한 ‘심봉사, 황성 가는 길’을 가야금병창으로 들려준다. 즉흥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나위와 오케스트라가 만나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대금, 소아쟁, 거문고를 위한 협주곡 ‘내일’(김성국 곡)은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대금 수석 김동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아쟁 수석 최영훈,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거문고 수석 김수민의 협연으로 펼쳐진다.

맑고 절제된 소리로 경기민요의 품격과 깊이를 대표해 온



지휘 이동현



지휘 이건설



소리 김영임

김영임 명창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무대에서는 경기민요의 전통적 멋과 현대적 울림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 김영임 명창은 ‘한(恨)’, ‘신천안삼거리’, ‘매화타령’, ‘창부타령’, ‘뱃노래’, ‘자진뱃노래’를 통해 경기민요 특유의 흥과 서정을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음향과 함께 펼쳐낼 예정이다.

마지막 곡인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태양의 신(The Sol)’(이지영 곡)은 진주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활동한 작곡가 이상근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악장’을 주제로 작곡된 국악관현악곡으로, 제1악장 ‘빛’, 제2악장 ‘기원’, 제3악장 ‘태양의 신’으로 구성되었다. 꺼지지 않는 ‘빛’의 영원성을 ‘영남 농악 가락(진주 삼천포 농악)’의 박진감 넘치는 풍물 가락과 국악관현악의 만남으로 풀어내었으며, 관현악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타악 협연자들의 솔로 장단은 각 악단 및 지역의 특색있는 가락으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무대에서는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이창효(쟁과리), 이현서(장구), 임채형(북), 김원영(북), 주시영(징)으로 구성된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이 협연을 맡아 한바탕 흥겨운 무대를 펼친다.

**3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인사이드 미

서울 대학로 화제의 오픈런 뮤지컬 '인사이드 미'가 부산을 찾는다.

뮤지컬 '인사이드 미'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형성된 이미지와 실제 나 사이의 괴리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2023년 초연 후 지난해 12월 대학로에서 1천회 공연기록을 달성하며 대학로 대표 창작뮤지컬로 인정받았다. 2025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지역 유통사업' 뮤지컬 부문과 한국관광공사 '공연 콘텐츠 외국어 자막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

시에 입증했다. 특히 지난해 대만과 홍콩의 첫 공개행사에 이어 올해 호주와 중국, 홍콩 전막 공연까지 확정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올해의 인플루언서상을 받은 IS인별과 실제 이름인 복자의 삶은 너무나 다르지만 하다. 인별의 연인인 진혁은 그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홀한 인별의 모습에 갈등을 겪게 된다. 결국 SNS에 중독된 인별은 현실과의 갈등을 낳으면서 남자친구 진혁과의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 두 사람은 나도 모르고 있던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찾게 된다.



뮤지컬 '인사이드 미'는 화려한 SNS 인플루언서 'IS인별'이 가짜 이미지 속에서 점점 본모습을 잃어가다, 결국 '진짜 나'를 찾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잊고 있던 '진심'과 '나다움'을 되찾는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이중적인 자아를 섬세하게 그려내면서 관객들로부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같다'는 호평을 받았다.

현대 사회의 흥미로운 이슈를 다루면서도 유쾌하고 경쾌한 공연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하는 이번 무대는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 '영웅', '해를 품은 달' 등에 출연하며 다채로운 연기 이력을 쌓아온 배우이자, 지난 5년간 EBS 대표 번개맨으로 활동했던 서홍석이 극작과 연출을 맡아 사회적 시선에 흔들리는 이 시대 청년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다. 여기에 작곡가 지성규의 감각적인 음악과 안무감독 이윤희의 세련된 안무가 더해져 풍부한 무대를 선사하며,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선까지 완벽히 표현하는 배우들의 몰입도 200% 연기로 단 한순간도 눈을 땔 수 없는 무대가 펼쳐진다.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낙동아트센터 970-277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가톨릭센터 공간101.1 462-1870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콘서트홀 640-8888

# Invitation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어택터씨어터 0507-1388-1447  
 에저도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인디아트홀 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 서부산교향악단 제1회 정기연주회

정통 클래식 음악의 본질과 깊이를 무대 위에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창단된 서부산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대구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정원영,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멤버로 있는 비올리스트 이정우가 협연한다.

#### 프로그램

바흐/비올라협주곡 다단조

비발디/사계

- 바이올린/정원영 • 비올라/이정우

- 📅 3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 🎫 전석 1만원
- ☎ 서부산교향악단 010-8865-1705



### 2026 부산 남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제15회 정기연주회 남구 행복 버스

부산 남구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인 부산 남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지난 2009년 창단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예술적 역량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해온 부산 남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합창단만의 감수성을 전하는 한국민요 특화 무대에 이어 '남구 행복 버스'를 테마로 희망찬 여정을 담은 메인 무대를 통해 맑고 명량한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따뜻한 행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 📅 3월 8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 🎫 무료
- ☎ 부산남구문화재단 608-1535



### 로렌조 미켈리 클래식 기타 리사이틀 기타로 그리는 밤의 이야기

알렉산드리아 피탈루가 콩쿠르 1위, 미국기타재단(GFA) 콩쿠르 1위 등 세계 최고 권위의 기타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후 전 세계를 무대로 독보적인 음악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로렌조 미켈리 부산공연.

워싱턴 포스터로부터 '경이로운 섬세함, 그야말로 황홀한 연주'라는 극찬을 받은 로렌조 미켈리는 현재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와 콜럼버스 주립대학교 상주음악가로 활동하며 스위스 루가노 음악대학 교수로 있다.

- 📅 3월 11일 수요일 오후 8:00 챔버홀
- 🎫 전석 4만원
- ☎ 파티타 02-3471-0017



### 이주용 피아노 독주회 송고의 여정

풍부한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매 연주마다 청중과의 깊은 교감을 선사하는 피아니스트 이주용 독주회.

이주용은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한국피아노학회, 한국피아노듀오협회 이사 및 건우회 멤버로 연구와 연주에 힘쓰며 음악적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이주용은 상실의 상처를 지닌 한 인간이 고독에서 출발해 사유와 초월, 그리고 인간다운 존엄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음악으로 그려낸다.

- 📅 3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 🎫 초대
-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510-1747



### 라이온스퀘어 정기연주회 We Serve, We Sing

국제라이온스클럽을 대표하는 라이온스퀘어의 정기연주회.

지휘자 손욱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가곡과 민요를 비롯하여 외국가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부산시민과 라이온스 회원들에게 합창을 통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단장/강동우
- 지휘/손욱 • 피아노/김현정
- 특별출연/소프라노 이연진, 테너 김준태, 금성하모니

- 📅 3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 🎫 초대
- ☎ 아지무소오페라단 010-9550-4649



### 신호은 바이올린 독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이자 센토챔버소사이어티, IPB, 음악실험실 짜임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신호은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신호은은 부산마루극제음악제 라이징스타 및 콘체르토 컴피디션 아티스트 부문에 입상하며 연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 프로그램

- 바흐/소나타 제1번 사단조 BWV 1001
- 베토벤/소나타 제5번 비장조 작품 24 '봄'
- 포레/소나타 제1번 가장조 작품 13
- 피아노/강한솔

- 📅 3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 ☎ 신호은 010-8408-6580



**Choi's Duo Concerto**  
All the Love in the World

부산시립합창단 전, 현직 단원으로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소프라노 최선희와 베이스 최성규가 함께하는 듀오 무대.  
'All the Love in the World(세상의 모든 사랑)'라는 테마로 남녀 간의 사랑에서부터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의 추억과 사랑 등 사랑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 🎫 3월 31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 🎫 전석 2만원
- ☎ 아트락 010-5468-4658



**꾸러기음악회 봄이 오는 소리**

어려서부터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도록 유아, 어린 이들을 위해 기획된 가족음악회.  
특히 집에 잠자고 있던 악기를 가져와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합주를 펼치는가 하면, 연주에 맞춰 폴카, 칸타, 왈츠까지 다양한 장르의 춤을 추며 클래식 음악을 온몸으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다.  
한편, 공연 시작 전에는 '악기야 놀자' 금관악기 공연팀과 함께 악기도 직접 연주해 볼 수 있다.

- 지휘/최신일 • 발레/와이즈발레단
- 동요/햇살나무중창단, 김서빈
- 연주/서울뉴데이스ymphonic오케스트라

- 🎫 3월 7일 토요일 오후 2:00 대극장
- 🎫 전석 6만원(36개월 이상 관람)
- ☎ 꾸러기예술단 02-547-9851



**너의 이름은. 필름 콘서트**

영화 상영과 함께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진행되는 필름 콘서트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은 2017년 개봉 후 4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신카이 마코토의 애니메이션 영화로, 이번 무대에서는 OST 대표곡인 'Sparkle'을 비롯해 OST 전곡을 영화 상영과 함께 50인조 풀 편성 오케스트라의 생생한 라이브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 지휘/백운학 • 바이올린/박진희
- 연주/서울페스타필하모닉오케스트라

- 🎫 3월 8일 일요일 오후 3:00 대극장
- 🎫 R석 10만원, S석 시야방해석 8만원, A석 6만원
- ☎ 필뮤직 010-8675-4559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너의 뜻대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명의 명작동화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너의 뜻대로'. 왕자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원작과 달리 스스로 하고 싶은 일과 꿈을 찾아가는 현대적 신데렐라로 탈바꿈한 작품으로, 지난 2024년 첫 선을 보인 후 매년 공연되며 부산시립극단의 레퍼토리로 가족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대본, 작사/김영화 • 작곡, 음악감독 이영재
- 연출/이현우 • 안무/홍충민

- 🎫 4월 3일(금)-25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1:00, 7:00(평일 단체관람) 사랑채극장
- 🎫 전석 1만2천원(전 연령 관람가)
-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뮤지컬 멜로우TV 'Run it up, 팀나빠'**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멜로우TV'와 그가 구성한 '팀나빠(준브레드, 유기사, 벨키, 우유참치)'가 웃음과 스킵이 가득한 게임 속 세계를 현실 무대로 소환한 뮤지컬 '멜로우TV-Run it up, 팀나빠'.  
특히, 화면 속에서만 보던 로블록스 속 맵과 플레이가 현실 공연으로 재탄생되었다. 관객이 직접 들어가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게임 뮤지컬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로블록스 게임 속 멜로우와 팀나빠 멤버들의 재미있는 케미스트리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 3월 1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15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 🎫 전석 7만원(24개월 이상 관람)
- ☎ (재)마당플레이박스 02-742-8836



**원더매직의 과학미술콘서트 시즌2**

과학과 미술의 흥미로운 만남 '원더매직의 과학미술콘서트' 시즌 두 번째 무대.  
미술같이 신기하고 과학처럼 놀라운 원리가 만나 이루어지는 융복합 공연으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다.  
SBS 스타킹 '영광의 마술왕' 우승, KBS '아침마당', SBS '전지적 참견시점', YTN 사이언스 '과학하는 마술사' 등 다양한 방송 출연과 함께 과학 콘텐츠 제작자로 과학미술공연에 대한 최초의 논문을 발표한 마술사 최형배가 과학미술의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 🎫 3월 14일(토)-15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소극장
- 🎫 전석 5만원(24개월 이상 관람)
- ☎ 원더매직 070-4202-2200



**연극 할딱배기와 히말라야**

죄의식과 구원에 대한 깊은 갈망을 일상적 삶 속에 녹여낸 문화판 모이라는 '할딱배기와 히말라야'. 문화판 모이라는 그동안 진실, 가족, 삶과 죽음, 슬픔, 소통 등 보편적인 인간의 고민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형상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삶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안고 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을 두 인물, 할딱배기와 히말라야를 통해 전한다.

- 작, 연출/김숙경
- 출연/진선미, 이윤휘, 홍기주, 이태경, 이크신, 최현준, 홍다희, 이주현
- 특별출연/황창기, 최현정

3월 19일(목)-20일(금) 오후 7:30, 21일(토) 오후 3:00 소극장  
 전석 3만원(만 14세 이상 관람)  
 문화판 모이라 010-9701-0712



**가족뮤지컬 정승제의 수학대모험: 수포자의 비밀**

최고의 수학 선생님 정승제와 스토리텔러 설민석,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수학대모험 '수포자의 비밀'.

30만 관객을 사로잡은 '한국사 대모험' 제작진이 다시 한번 몽친 이번 무대는 학습만화로 출간된 '정승제의 수학대모험'을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으로, 수학 0점 노아의 우주평화를 건 수학대모험을 통해 응용력과 추론력,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 총감독/설민석 · 연출/김중혜
- 공동작가/설민석, 최준식

3월 28일-29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대극장  
 전석 7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썬더화랑이엔티 1800-6567



**퀵콘서트 WDR 방송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65년의 역사를 지닌 퀵콘서트오케스트라가 8년 만에 갖는 내한 공연. 라트비아 출신의 젊은 거장 안드리스 포가가 지휘를 맡아 정통 독일 사운드를 전하며, 독일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다니엘 뮐로 쇼트와 한국의 떠오르는 신예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이 밀도 높은 듀오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슈만/만프레드 서곡 작품 115  
 브람스/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작품 102  
 차이콥스키/교향곡 제4번 바단조 작품 36

3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R석 12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합창석 3만원  
 낙동아트센터 970-2771



**K-히어로 뮤지컬 똥볶이 할멈: 정의의 맛**

누적판매 33만 뷰를 돌파한 '똥볶이 할멈' 시리즈를 무대화한 가족뮤지컬 '똥볶이 할멈: 정의의 맛'.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우주 최강 떡볶이지만, 똥볶이 할멈이 주문을 외는 순간 떡볶이는 구리 구리한 똥맛으로 변한다. 오늘도 똥볶이 할멈은 어린이를 괴롭히는 악당을 무찌르고 맛있는 떡볶이를 만드는데, 그만 맛있는 냄새가 저승까지 흘러가고... 기상천외의 어린이 고민 해결사 똥볶이 할멈의 새로운 모험담이 흥겨운 노래, 신나는 춤과 함께 펼쳐진다.

4월 4일-5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소극장  
 전석 3만5천원(상시 할인)  
 썬더이컬처 070-7807-0701



**지브리 발레 FESTA**

발레로 즐기는 특별한 음악여행 '지브리 발레 FE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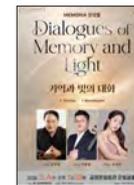
애니메이션으로만 보던 지브리의 명장면을 오케스트라 선율과 발레의 몸짓으로 재탄생시킨 이번 무대는 영화음악과 발레라는 두 예술장르가 만나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춤추는 지휘자'로 알려진 지휘자 백운학이 지휘하는 서울페스타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와이즈발레단의 아름다운 무대가 관객들을 지브리의 세계로 이끈다.

4월 5일 일요일 오후 3:00 대극장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주)필뮤직 010-8675-4559

**3월 금정수요음악회**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관객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할 실내악의 무대로 꾸며지는 금정수요음악회.



**4월(917회) Memoria 앙상블 '기억과 빛의 대화'**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 첼리스트 이동열, 피아니스트 김정은으로 구성된 Memoria 앙상블의 무대.



**18일(918회) 앙상블 아미코의 '조화의 여정'**  
 피아니스트 서혜리,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비올리스트 박지수, 첼리스트 심어라로 구성된 앙상블 아미코의 무대.

'친구들의 앙상블' 또는 '우정의 앙상블'이라는 뜻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콘서트가이드 김성민의 해설과 함께 모차르트의 브람스의 피아노 콰르텟 연주를 들려준다.

3월 4일(수), 18일(수)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전석 1만원(당일 현장 구매)  
 금정문화회관 519-5664



**디 솔리스텐 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조화와 영감**

음악감독 정준수를 주축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창원, 대구 등 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디 솔리스텐 앙상블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조화와 영감'이라는 부제로 비발디와 몰터, 바흐의 곡을 들려준다.

- 음악감독/정준수(첼로)
- 협연/백동훈(클라리넷), 이현우(바이올린), 손은혜(바이올린), 김기량(첼로), 성민주(피아노)

- 🎫 3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 ☎ 디 솔리스텐 앙상블 010-9556-7542



**부산에서 시작되는 재즈의 새로운 향해  
2026 BUSAN JAZZ PORT**

부산항의 밤바다와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재즈무대를 선보이는 '2026 BUSAN JAZZ PORT'.



**7일(토) 부산 바닷바람에 실린 재즈**  
깨끗하고 편안한 보컬이 바다처럼 흐르는 섬세한 재즈 무대로 보컬 최은아, 장보영, 더블베이스스트 윤해성, 드러머 곽영일이

출연한다.

**14일(토) 낭만의 항구, 클래식 재즈**

클래식의 품격과 재즈의 자유가 만나 깊은 울림을 주는 무대.

- 보컬/김경한, 김비오
- 피아노/김대규 • 더블베이스/박주민



**21일(토) 부산의 밤을 노래하다**  
허스키한 감성과 소울풀한 그루브가 완성하는 진한 재즈 무대.

- 보컬/이효정, 장세연
- 더블베이스/배우철
- 드럼/피오트르 파블락



**28일(토) 항구에서 세계로, 부산 재즈의 향해**

국악과 재즈의 만남으로 확장되는 부산재즈포트의 피날레 무대로, 퓨전국악팀 더 보이저(The Voyager)가 출연, 국악과 재즈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피아노/민주신 • 베이스/김대경
- 대금/고현아 • 장구/안유진

- 🎫 매주 토요일 오후 6:00 스페이스 원지
- 🎟 무료(사전 예약)
- ☎ 스페이스 원지 0507-1355-4500



**울속도문화회관 예술공감**

**10일(제83회) K-클래식 헌터스: 앙상블 윈터**  
세계 유수 음악기관에서 수학한 해외유학파 음악가들이 모여 창단한 아트내상스의 성악 앙상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K-클래식의 우수한 예술성과 대중성까지 갖춘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만난다.

**31일(제84회) 문학 속에 흐르는 클래식 시리즈2 '마지막 칸타타'**

바흐에서 모차르트, 베토벤을 거쳐 바그너, 말러로 이어지는 음악을 필립 들레리스의 추리소설 '마지막 칸타타' 전개에 따라 연주하여 소설의 장면과 내용을 음악을 통해 듣는 특별한 공연이다.

- 🎫 3월 10일(화), 31일(화) 오후 7:30
- 📍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 🎟 전석 1만원(예매 시 20% 할인)
-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금난새와 함께하는 특!특!특!  
실내악 페스티벌**



한국이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의 해설과 진행으로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하는 '특!특!특! 실내악 페스티벌'.

**11일(수) First Stage**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 클래식 기타리스트 지역환, 반도네오니스트 김종완의 무대.

**프로그램**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타레가), 망각(피아졸라), 랩 소디 인 블루(거슈인), 영화음악 메들리

**12일(목) 트리오 헤르만**

부산 출신으로,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연주 경험을 쌓은 피아니스트 조민현, 바이올리니스트 임정은, 첼리스트 안수빈으로 구성된 트리오 헤르만의 무대.

트리오 헤르만은 독일 데트몰트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헤르만 동상에서 이름을 따온 피아노 트리오로, 동상이 지닌 의미처럼 음악적 뿌리와 배움을 소중히 여기며 꾸준히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프로그램**

피아노 3중주 제39번 '집시' 3악장(하이든), 작은 별(폰세), 사랑의 속삭임(카사도), 마주르카 제4번(쇼팽), 카페뮤직(셴필드)

**13일(금) 골든브라스**

지휘자 금난새의 제안으로 창단된 골든브라스의 무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독특한 구성,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프로그램**

알렐루야(모차르트), 불의 춤(디로렌조), 매직 호른 탱고(토비), 대니보이(아일랜드 민요), 개구리의 로 맨스(트로얀), 푸틴 온 더 리츠(벌린), 록킹 굿, 필링 배드(윌러), 모리코네의 순간(드 메이)

- 호른/박용인
- 트럼펫/박경렬, 김용건
- 트롬본/이용우 • 튜바/문지웅

- 🎫 3월 11일-13일 수-금요일 오후 7:30
- 📍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 R석 2만원, S석 1만원
-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2026 신인을 주목하라!

금정문화회관이 매년 젊은 연주자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해온 특별한 무대 '2026 신인을 주목하라!'.

2017년 첫발을 내딛은 후 지금까지 부울경 지역 약 250명의 신인 음악가들이 이 무대를 통해 데뷔했다.

올해는 지난 2월 음악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경성대, 경남대, 고신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울산대, 인제대, 국립창원대 등 9개 대학, 총 24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3월 11일 성악·작곡 전공자들의 화려하고 깊이 있는 무대에 이어 12일은 피아노·현악이 어우러지는 감미로운 무대가 펼쳐지며, 13일은 관악·타악의 열정적인 연주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 🎫 3월 11일(수)-13일(금)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 초대
- ☎️ 금정문화회관 519-5661



### 바리톤 김동규 프리미엄 콘서트 3월 愛 어느 멋진 날에

세계를 매료시킨 바리톤 김동규의 특별한 무대.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성악가로 대중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아온 김동규는 세계적 권위의 제31회 베르디국제콩쿠르에서 1위 입상한 후 이탈리아 라스칼라 오페라극장 오디션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통과하면서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화려한 명성을 쌓았다.

특히 2000년 발표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악가로 자리매김했다.

- 🎫 3월 12일 목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 VIP석 11만원, R석 9만 9천원, S석 7만 7천원, A석 5만 5천원
- ☎️ ㈜좋은콘서트 1833-4581



### 동래문화회관 목요상설음악회

12일(목) 대극장 연모: 한국가곡으로 그리는 사랑의 여정

'오페라 오디세이' 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작품과 주제를 새롭게 풀어온 린아트오페라단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다양한 한국가곡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엮어 오페라의 장면처럼 이어지며 하나의 서사를 완성한다.

26일(목) 소극장 Dear Mr. Mozart: 친애하는 모차르트씨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성악인들로 구성된 아트내상스가 모차르트의 주요 오페라 아리아를 연결하여 스토리텔링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 3월 12일(목), 26일(목)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소극장
- 👉 무료
- ☎️ 동래문화회관 550-6611



### 안드라스 슈프 피아노 리사이틀

악보 너머의 음악을 읽어내는 진정한 거장, 안드라스 슈프 피아노 리사이틀.

헝가리 출생의 영국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안드라스 슈프는 탁월한 해석과 연주로 '고전시대 레퍼토리의 최고 권위자'라 불리며 음악에 헌신한 공로로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기사 작위를 수여받았다. 안드라스 슈프는 그의 방대한 레퍼토리 중에서 공연장의 음향과 악기의 성향, 그리고 그날 무대에서 느껴지는 공연장의 분위기까지 종합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이번 공연 역시 당일 무대에서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가 음악을 선택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다.

- 🎫 3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콘서트홀
- 👉 R석 16만원, S석 12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 ☎️ ㈜마스트미디어 070-8680-1277



### F1963 겨울음악회5 사무엘 윤&바그너

문화재단1963이 마련하는 겨울음악회 마지막 무대 '사무엘 윤&바그너'.

세계적인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은 2012년 독일 바이로이트에서 열린 바그너 오페라 축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개막작인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주역을 맡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2016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상)을 수상하고 2022년 독일 정부로부터 최고 영예인 궁정가수(Kammersänger) 칭호를 수훈받은 사무엘 윤은 현재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박세준
- 🎫 3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F1963 석천홀
- 👉 전석 3만원
- ☎️ 문화재단1963 760-1812



### 2026 영도문화예술회관 신춘음악회 카운터테너 이등규와 소프라노 이해원의 화이트데이 콘서트

화이트데이를 맞아 연인과 가족,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감성적인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비냐스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우승하고 2023년 JTBC '팬텀싱어4'에 참여하여 그룹 '포르테나'로 준우승을 차지한 카운터테너 이등규와 따뜻하고 청아한 음색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소프라노 이해원이 관객들에게 특별한 음악 선물을 전한다.

- 피아노/문재원
- 🎫 3월 14일 토요일 오후 6: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 👉 전석 3만원
-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 시그니엘 부산 더 라운지 하우스 콘서트

시그니엘 부산과 예술기획 마음미인 협업으로 마련되는 클래식 하우스 콘서트.

해운대의 풍경을 품은 시그니엘 부산 더 라운지에서 매월 서로 다른 연주자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정기 하우스 콘서트 시리즈로, 프리미엄 공간 안에서 클래식 음악이 지닌 친밀한 매력을 통해 부산의 일상 속 문화 풍경을 한층 풍요롭게 하고 있다. 3월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플루트 수석 이주형과 하피스트 정주희가 화이트데이를 맞아 'A White Day Serenade-봄날에 건네는 사랑의 기억'이라는 테마로, 사랑의 정서를 담은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 🎵 3월 14일 토요일 오후 2:30 시그니엘부산더라운지
- 🎫 시그니엘 부산 더 라운지 이용 시 무료
- ☎ 시그니엘 부산 더 라운지 922-1212



### 을숙도문화회관 제103회 명품콘서트 가수 황가람과 함께하는 신춘음악회

을숙도문화회관이 2026년 봄의 길목에서 마련하는 신춘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엔리카 장이 지휘하는 홀튼오케스트라 연주로, '나는 반딧불'로 유명한 가수 황가람을 비롯하여 소프라노 박지은, 테너 허동권, 드러머 김민동, 모듬북 주자 김수동이 출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봄의 시작을 알린다. 1부에서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테너-소프라노 성악 협연을 통해 클래식 명곡을 선보이고, 2부에서는 황가람의 대표곡을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만나 볼 수 있다.

- 🎵 3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 🎫 1층 3만원, 2층 2만원(예매 시 20% 할인)
-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 이소정 바이올린 독주회

고전에서 낭만으로 이어지는 레퍼토리를 통해 음악의 흐름과 감정의 변화를 담아낸 바이올리니스트 이소정 독주회.

모차르트의 명료한 균형미부터 브람스와 클라라 슈만의 섬세한 서정, 프랑크의 깊은 서사까지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지는 이번 무대에서 서로 다른 시대의 작품들은 연주자의 해석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새로운 음악적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소정은 현재 다양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활발한 연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 3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 초대
- ☎ 이소정 010-3531-8427



### 해운대 비긴어게인

해운대문화회관의 야외광장을 또 하나의 열린 광장으로 운영하며,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고 즐기는 관객 친화형 문화회관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해운대 비긴어게인'.

바쁜 일상 속 심표 같은 시간이 되어줄 이번 무대에서는 콘서트가이드 김성민의 진행으로 색소포니스트 신유식, 전자바이올리니스트 홍사량, 팼페라 그룹 Tre Voci(테너 백예훈, 테너 이광진, 바리톤 김경환)가 함께하며 '베토벤 바이러스', '지금 이 순간', 'Uptown Funk' 등 우리에게 친숙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봄날의 감동을 선사한다.

- 🎵 3월 20일 금요일 오후 7:00
- 📍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 🎫 무료
-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존 윌리엄스 VS 한스 짐머

한 무대에서 만나는 영화음악의 전설 '존 윌리엄스 VS 한스 짐머'.

고전적 오케스트레이션의 거장이자 풍부한 멜로디와 서사적 드라마의 존 윌리엄스, 그리고 현대 영화음악의 혁신가이자 강렬한 리듬과 압도적인 스케일의 한스 짐머,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화의 역사를 장식해온 두 거장의 음악을 풀 편성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지휘자 최영선이 이끄는 밀레니엄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색소포니스트 조세형,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진이 협연한다.

- 🎵 3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콘서트홀
- 🎫 VIP석 12만원,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 ☎ 두남재엔터테인먼트 02-6292-9368



### 제10회 트raum 앙상블 연주회

클래식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꿈(Traum)을 펼쳐기 위해 2012년 첫발을 내딛은 트raum 앙상블의 10번째 정기연주회.

연주하지 않을 때의 편안함보다 연주할 때의 불편함을 더 즐기는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결성된 트raum 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슈만의 '피아노 4중주 작품 47'과 '피아노 5중주 작품 44'로 음악을 향한 진심을 관객과 함께 나눈다.

- 바이올린/이혜진, 하지경
- 비올라/황희경, 김서윤
- 첼로/오민성, 조명환

- 🎵 3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 무료
- ☎ 트raum 앙상블 010-8593-3045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바람이 피어나는 계절**  
 송정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가 마련하는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3월 무대.  
 누구나 좋아하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음악을 비롯하여 클래식 명곡을 앙상블 연주로 들려주는 이번 무대는 '어디서든 연주 가능한 히든 플레이스(어연히)' 대표로 있는 첼리스트 이명로와 '어연히' 부대표 플루티스트 신혜원, '첼리스트의 서재' 대표이자 그라스네 앙상블 단원인 피아니스트 박민희, 그라스네 앙상블 단원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후, 첼리스트 이석민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 🎵 3월 21일 토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 🎫 전석 3만원
-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부산시민교향악단 제5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전곡 시리즈 세 번째 황제 & 운명**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을 가진 시민들로 이루어진 부산시민교향악단 정기연주회. 2020년 5월 첫 합주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민교향악단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진솔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오고 있다. 이번 무대는 베토벤 교향곡 전곡 연주 시리즈 세 번째 무대로, 지휘자 정현진이 지휘하고 현재 유럽과 한국에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홍민수의 협연으로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5번 '황제'와 교향곡 제5번 '운명'을 들려준다.

- 🎵 3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콘서트홀
- 🎫 무료
- ☎ 부산시민교향악단 010-9081-4731



**사카리 오라모 &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영국 클래식 음악의 상징 BBC심포니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핀란드 지휘계를 대표하는 사카리 오라모가 이끄는 BBC심포니오케스트라는 BBC 프롬스의 개·폐막 공연을 책임져온 영국의 간판 오케스트라이자 런던 바비칸센터의 상주오케스트라로 '국민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영국의 대표 교향악단이다. 차이콥스키 국제피아노콩쿠르 준우승 이후 국제 무대에서 신뢰 받는 피아니스트로 자리한 손열음은 이번 무대에서 섬세하고도 강렬한 연주를 선사한다.

- 🎵 3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콘서트홀
- 🎫 VIP석 22만원, R석 19만원, S석 16만원, A석 13만원, B석 10만원, C석 5만원
- ☎ ㈜한국경제신문 02-360-4525

하  
이  
미



**오페라떼 콘서트 시즌 3 오페라와 떠나는 인문여행 오페라 토스카**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과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한 해운대문화회관만의 콘텐츠 '오페라떼 콘서트'. '오페라떼'는 오페라(Opera)와 예술(Arte)의 합성어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융합한 공연이란 뜻을 지녔다.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이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속 역사와 문화, 음악적 배경을 설명하며 소프라노 김유진, 테너 이태훈, 바리톤 안세범, 피아노 김경미가 함께한다.

- 🎵 3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 R석 2만원, S석 1만원
-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이상설공연 onStage 달음(DAL:UM) Coexistence**  
 영도문화예술회관의 수이상설공연 'onStage' 3월 공연으로, 가야금연주자 하수연과 거문고연주자 황혜영으로 결성된 국악 듀오 '달음(DAL:UM)'의 무대. 달음의 두 번째 정규 앨범 'Coexistence'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주제 아래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균형을 음악적으로 만든 작품으로, 전통 선법을 기반으로 한 '다스름'에서 '탈', 'dot', 'The Waves', 'Cracking', 'Alive'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음악적 서사를 보여준다.

- 🎵 3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 🎫 전석 1만원
-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을숙도문화회관 굿모닝콘서트 소프라노 양귀비 · 테너 조중혁의 서정이 꽃구름처럼 번지는 시간**  
 자연 속 정원에 자리 잡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모닝커피와 함께 공연을 즐기는 굿모닝콘서트 3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양귀비와 테너 조중혁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새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양귀비는 독일 쾰른 오페라극장 전속 주역가수로 11년간 활동해왔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다. 조중혁은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실력파 성악가이자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해왔다.

- 🎵 3월 27일 금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예매 시 20% 할인)
-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기타공연장



2026 NAC 시그니처 클래식  
심포니 No. 5 & 코랄 시리즈 I  
베토벤 No. 5

부산 클래식의 아이콘 오충근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가 연주하는 NAC 시그니처 클래식 시리즈 첫 무대.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시작으로 멘델스존, 슈베르트, 쇼스타코비치, 차이콥스키, 말러, 시벨리우스 등 주요 작곡가들의 교향곡 제5번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충근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수석예술부감독으로 활약한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으로 베토벤 오페라 '피델리오' 서곡을 시작으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64', 그리고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고뇌의 근육질이라 할 수 있는 베토벤의 음악과 대조적으로 여성적 우아함을 느낄 수 있는 멘델스존 협주곡을 통해 균형 잡힌 고전음악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철학적 사유와 음악적 정체성을 담아 창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휘자 오충근은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초대 예술감독, KNN방송교향악단 대표이사 겸 초대 예술감독, 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를 지내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있다.

'비범한 테크닉, 다양한 표현력, 진정성 있는 음악이 인상 깊은 바이올리니스트'라 호평받는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은 15세에 비에니아프스키 국제콩쿠르 한국인 최초 및 최연소 2위 수상과 함께 음악평론가상, 방송청취자상 등 7개의 부상을 받으며 크게 주목받았다.

- 🕒 3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 ☎ 낙동아트센터 970-2271



영도에서 떠나는 예술여행  
미술과 오페라의 만남 I

영도문화예술회관의 대표 인문-예술 융합 프로그램 '영도에서 떠나는 예술여행'.

특히 영도문화예술회관의 특별기획전 '구스타프 클림트 레플리카전'과 연계하여 열리는 이번 렉처콘서트에서는 전시 연계강좌에서 다루었던 오페라와 미술작품을 중심으로, 라이브 공연과 해설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통해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예술적 의미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다.

- 콘서트가이드/김성민
- 소프라노/박현진    • 테너/김준태
- 바리톤/이태영    • 피아노/신새라

- 🕒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1:00
- 📍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 🎫 전석 1만원
-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부경챔버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2020년 창단 후 목관악기와 현악기의 독특한 어우러짐과 따뜻하고 맑은 음색으로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부경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경챔버오케스트라는 멤버 개개인의 뛰어난 실력과 해가 갈수록 하나되는 호흡으로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휘자 김태훈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제1번과 2번,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사단조 작품 26' 1악장, 김효근 '첫사랑', 모차르트 '밤의 여왕 아리아'를 들려준다.

- 지휘/김태훈
- 바이올린/손현지    • 소프라노/권소라

- 🕒 3월 28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 초대
- ☎ 부경챔버오케스트라 010-3146-8434



류이치 사카모토 트리뷰트 콘서트

2023년 우리 곁을 떠난 세계적인 영화음악가이자 환경운동가였던 류이치 사카모토의 트리뷰트 무대. 1989년 베를톨루치 감독의 영화 '마지막 황제'의 음악을 맡으며, 아시아인 최초로 아카데미 영화음악상을 수상한 류이치 사카모토는 이후 그래미 어워드, 골든 글로브 상까지 수상하며 세계적인 거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국 팬들이 사랑한 사카모토 류이치의 'Merry Christmas Mr.Lawrence', 'Last Emperor', 'Rain', 'Opus', 'Aqua' 등 그의 대표곡들을 피아니스트 한주현과 바이올리니스트 양윤정, 첼리스트 이라의 앙상블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 🕒 3월 29일 일요일 오후 3:00 부산콘서트홀 챔버홀
- 🎫 전석 6만6천원
- ☎ ㈜낫싱벤티컬 031-925-0660



2026 라이징스타 데뷔콘서트 With 부산솔로이스츠

부산솔로이스츠가 2019년부터 지역의 패기있고 우수한 기량을 지닌 신인 연주자들에게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데뷔무대를 마련해주는 2026 라이징스타 데뷔콘서트.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명예교수)
- 피아노/엄상윤, 김효빈, 박경빈, 이희정, 하태원, 박지윤&김은영
- 바이올린/진예은    • 첼로/강희제
- 클라리넷/전윤솔

- 🕒 3월 29일 일요일 오후 5:00
- 📍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 🎫 무료
- ☎ 부산솔로이스츠 010-8524-0069



**연극 스위치**

4D 기술로 구현되는 감각적이고 화려한 공포의 결정판으로, 공포 연극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을 바꾼 연극 '스위치'.

과거 극장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을 조사하던 유기자는 고연출의 연속된 공연 흥행과 과거의 사건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직감하고 그의 수상한 행적을 쫓기 시작한다. 관객들은 무대 위 인물들과 함께 점점 깊어지는 공포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마지막 순간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만나게 된다.

- 📅 1월 8일(목)~3월 2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5: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 🎫 전석 4만원
-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연극 오늘도 극한직업**

사파리와 롤러코스터가 결합한 신개념 놀이기구 사파리 익스프레스에서 벌어지는 멸종위기 나무늘보의 월드와이드 짝짓기 프로젝트 '오늘도 극한직업'.

프로젝트 성공 후 포상금을 향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의지를 불태우는 사파리 익스프레스 직원들의 이야기가 코믹하게 펼쳐진다.

- 📅 1월 9일(금)~3월 29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 전석 4만원
-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더 매직서커스**

국내 유일의 서커스 부부, 박현우 마술사와 이희민 곡예사가 펼치는 환상의 서커스 매직쇼.

스릴 넘치는 공중곡예부터 신비한 마술의 세계, 마임공연까지 다채로우면서도 특별한 무대가 어린이들을 꿈과 모험의 세계로 이끈다.

25년 경력의 정통 마술사 박현우는 춘천마임프린지 최우수상, 용인버스커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거창국제연극제, 과천공연예술축제,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이희민은 13년 경력의 공중곡예사로 '미스트롯2' 공중곡예사, 다큐멘터리 '눈에 띄는 그녀들'에 출연한 바 있다.

- 📅 3월 14일 토요일 오후 1:00, 3:00, 5:00, 15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1:30,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 전석 5만원
- ☎️ 좋은사람들 070-7807-0701

다  
정



**연극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소설 '광장'으로 유명한 최인훈 작가의 예술적인 시어를 드라마로 그려낸 연극 '봄이 오면 산에 들에'.

1970년대 이후 소설을 중단하고 희곡 집필에 전념했던 최인훈 작가가 남긴 7편의 희곡 중 하나로, 문둥이 엄마와 말더듬이 아버지를 둔 '달래'와 그녀의 연인 '바우'의 삶을 통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된 개인의 비극과 희망을 전한다.

- 작/최인훈 • 연출/전상배
- 안무/허경미 • 음악/박진규
- 출연/변혜림, 유상훈, 박영준, 황미애, 서원오, 박은진, 박준영

- 📅 3월 3일(화)~6일(금) 오후 7:30, 7일(토) 오후 4:00 **공간소극장**
- 🎫 전석 3만원
- ☎️ 공간소극장 611-8518



**라이프 오브 파이**

맨부커상을 수상한 베스트셀러이자 이안 감독의 영화로도 유명한 화제작 '라이프 오브 파이' 한국 초연 무대.

특히 실제 각 동물의 골격과 근육, 움직임의 바탕으로 디자인된 퍼펫과 퍼펫을 조정하는 퍼펫티어들의 숙련된 움직임과 능숙한 연기가 퍼펫을 단순한 인형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실제 동물처럼 느끼게끔 숨을 불어넣는다.

- 📅 3월 7일(토)~15일(일) 화-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2:30, 7:30, 주말 오후 2:00, 7:00 (월요일 공연 없음, 3/15일) 오후 3:00 1회 공연) **드림씨어터**
- 🎫 VIP석 16만원, 포커스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 ☎️ 클립서비스(주) 1577-3363



**2026 가족매직쇼 매직키즈 서커스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매직쇼 '매직키즈 서커스쇼'.

서커스의 스펙터클과 마술의 신비로움이 어우러진 이번 무대는 역동적인 '저글링쇼'에서부터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마임 퍼포먼스쇼', 그리고 관객과 소통하는 참여형 마술쇼 '매직 아트쇼'까지 잠시도 눈을 떼 수 없는 다채로운 무대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 📅 3월 1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5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 🎫 전석 3만5천원(24개월 이상 관람)
- ☎️ 썬조이컬처 070-7807-0701



2026년 공연예술유동지원사업  
어린이 체험 오페라 전설의 황금미역

관객 참여형 체험 오페라로 꾸며지는 '전설의 황금미역'.

환경오염으로 병든 바다를 구하기 위한 바다생물의 사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환경 보호와 협력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관객들이 소고 또는 캐스터네츠를 직접 들고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색다른 공연 경험을 선사한다.

- 테너/김지훈
- 바리톤/류동휘, 홍승범
- 소프라노/김기쁨, 박현아, 이윤선

3월 20일 **금요일** 오후 1: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1만원(5세 이상 관람)  
동래문화회관 550-6611



어린이 마술공연 리온의 신비한 과자상점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보는 오감만족 마법쇼 '리온의 신비한 과자상점'.

반짝이는 마법도구들이 가득한 리온의 과자상점. 오늘도 리온은 신비한 주문을 외우며 특별한 과자를 만든다. 초대한 아이들이 가게를 찾아오자 리온은 마법과자를 선물하며 환상의 세계로 그들을 초대하는데...

눈 앞에서 펼쳐지는 마술사 리온의 신비로운 마법과 더불어 관객이 직접 마법사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도 경험할 수 있다.

3월 2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가온아트홀 1관**  
전석 3만원(전체 관람가)  
쉬문화락 1600-1602



가족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주 최강 아빠와 함께 떠나는 신나는 여행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가족뮤지컬.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이번 무대는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멋진 아빠의 모습을 아이의 시선에서 따뜻하게 그려낸 뮤지컬로, 웃음과 감동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특히 아이들은 아빠와의 신나는 여행길에서 흥겨운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무대와 소통한다.

3월 22일 **일요일** 오후 1:00, 3: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전석 4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조이컬쳐 070-7807-0701



쇼뮤지컬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캐치! 티니핑'의 새로운 시즌을 기반으로 제작된 쇼뮤지컬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세계가 인정한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전작 '사랑의 하츠펙'에 이어 총감독을 맡아 마술적인 장면 연출과 독창적인 무대 표현으로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더 깊어진 스토리와 압도적으로 화려해진 쇼연출, 그리고 티니핑 고유의 캐릭터를 극대화한 세밀한 퍼펫 연출을 통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3월 28-29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백스코 오디토리움**  
R석 7만원, S석 6만원(24개월 이상 관람)  
㈜EJ 1566-6551



어린이뮤지컬 쿵구멍을 후비면

어린이들의 나쁜 생활 태도와 버릇을 고치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교육 뮤지컬 '쿵구멍을 후비면'.

주인공 밤돌이는 이 닦기 귀찮아하고 쿵구멍 후비기를 좋아한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랑 똑같이 생긴, 한쪽 쿵구멍이 우스꽝스럽게 커진 아이가 자기가 밤돌이라고 우기는데...

이번 무대는 코를 후비면 주먹만하게 커지는 쿵구멍, 귀를 잡아당기면 꼬끼리 귀처럼 늘어나는 귓볼 등 어린이들이 자주 하는 행동의 결과를 과장되게 보여줌으로써 나쁜 습관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4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좋은사람들 070-7807-0701



창작발레 '갓(GAT)' 전국 투어

한국 전통 의관인 '갓'을 모티브로 선비의 기개와 절제미를 발레의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풀어낸 윤별발레컴퍼니의 창작 발레 '갓(GAT)'.

전국 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관객들에게는 처음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갓이 가진 곡선과 직선의 조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신성을 클래식 발레의 테크닉과 결합해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윤별 예술감독을 필두로 박소연 공동 안무가와 Mnet 스테이지파이터 및 국내외 유명 발레단에서 활약해 온 최정상급 무용수 22명이 함께한다.

3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R석 5만원, S석 3만원  
금정문화회관 519-5661-74

### 3월 아카데미 시네바움

5일(목) 오후 5:00 중국어로 읽는 당시 삼백수  
 9일(월) 오후 7:00 우리 모두의 미술사 'Homo Universalis: 전성기 르네상스'  
 • 강의/김석모(전 서울미술관 관장, 미술사학자)  
 16일(월) 오후 7:00 미디어 리터러시-시민기자 대학 '기사 작성의 기본: 취재 기초와 인터뷰 기술'  
 23일(월) 오후 7:00 우리 모두의 미술사 'Maniera Moderna: 매너리즘, 일탈의 미학'  
 • 강의/김석모(전 서울미술관 관장 · 미술사학자)  
 26일(목) 오후 5:00 하이쿠 산책  
 30일(월) 오후 7:00 다큐멘터리 '나무의 노래' 시사회 & GV  
 • 참석/진재윤(다큐멘터리 감독, 기자, PD)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5일(목)·26일(목) 오후 5:00 시네바움  
 ☎ 시네바움 010-2774-3455



### 3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오페라와 클래식음악에 가까워질 수 있는 수준 높은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오페라/베르디 '아이다'(5일~7일), 베르디 '오텔로'(12일~14일), 벨리니 '노르마'(19일~21일), R.슈트라우스 '인테르메초'(26일~28일)  
 콘서트/라벨 '피아노협주곡'(2일, 7일), 모차르트 '두대의 피아노협주곡 kv365'(9일, 14일),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16일, 21일), R.슈트라우스 교향시 '둔키호테'(23일, 28일)

📅 매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2:00 오페라바움  
 💰 전석 2만5천원  
 ☎ 오페라바움 010-4205-1039

### The Black Trilog

초현실주의 사진의 거장, 알프 곱슨의 '블랙 3부작 The Black Trilog'을 재조명하는 기획전.  
 사진가 곱슨의 시선과 세계관이 집약된 1970년대 초기 대표작 120여 점의 젤라틴 실버 프린트 120여 점을 새로운 구성으로 선보인다.

📅 2025년 9월 11일(목)-2026년 8월 30일(일)  
 📍 고은 김슨 사진미술관  
 ☎ 1인 3천원  
 ☎ 고은 김슨 사진미술관 0507-1363-1939

### 2025 부산현대미술관 플랫폼 나의 집이나

인구감소, 지역소멸, 주거 위기, 고령화와 돌봄의 재편 등 오늘의 도시가 직면한 소멸과 확장이라는 비대칭의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특별전.

📅 2025년 11월 29일(토)-2026년 3월 22일(일)  
 📍 부산현대미술관  
 ☎ 부산현대미술관 220-7400

시영



### 김옥균의 인문학 클래식 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명곡연주회 해설감상회

전 MBC PD이자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 음악감독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뮤직아카데미'. 클래식 왕초보 입문자도 환영.

**프로그램**  
 • 베토벤 바이올린소나타 제5번 '봄'  
 • 비발디 '사계' 중 '봄'  
 • 헨델 '수상음악', '사라방드'  
 •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 그리그 '페르귄트 모음곡'  
 • 비제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 멘델스존 '바이올린협주곡'  
 • 모차르트 '바이올린협주곡 제3번'  
 • 슈베르트 '미완성교향곡'

- 연가곡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
-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5번'
- 베토벤 '코랄판타지'
- 브람스 '대학축전' 서곡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다송뮤직아트홀  
 💰 2개월 10만원  
 ☎ 김옥균 예술감독 010-6367-0149

### 제204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 출연/허영화, 허충순 시인 외 회원
- 초대시인/김태근 시인, 음성은 시낭송가
- 초청음악가/소프라노 김보민, 테너 김이수, 가수 제기정,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 3월 21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문화홀  
 💰 무료  
 ☎ 회장 김옥균 010-6367-0149



### 광복 80주년 기념 임시수도기념관 특별기획전 경계와 지역의 땅 하야리아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용지에 이어 해방 이후에는 주한미군 부산기지사령부로 운영되다가 오랜 부지 반환 운동을 거쳐 2014년 부산시민공원으로 재탄생한 캠프 하야리아의 흔적을 되짚어보는 특별전.

📅 2025년 12월 2일(화)-2026년 5월 10일(일)  
 📍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원형전시실  
 💰 무료  
 ☎ 부산시민공원역사관 850-6061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레플리카전**

서양미술 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네덜란드 후기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짧지만 강렬했던 예술세계를 정밀하게 재현한 레플리카 작품을 통해 소개하는 특별한 전시. 초창기 농민 화가 시절부터 파리에에서의 수련기, 남부 프랑스의 생활, 생레미 병원에서 시간, 그리고 오베르의 마지막 나날에 이르기까지 고흐의 미술세계를 다섯 개의 테마로 구성, 그의 치열했던 창작 여정을 깊이 있게 조망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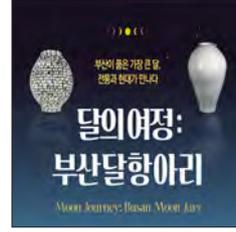
- 📅 1월 2일(금)-3월 29일(일) 동구문화플랫폼
- 🎫 일반 1만원, 청소년·어린이 8천원
- ☎ 동구문화플랫폼 465-4070



**2026년 을숙도 들락날락 상반기 기획전시 말(馬) 그리고 말(語)**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마련한 을숙도 들락날락 기획전. 이번 전시에서는 동물의 형상에 투사된 인간적 감동의 파동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새겨 넣는 허승주 작가와 실의 질감을 이용한 터프팅 기법과 유화의 깊이를 결합하여 독창적인 조형언어를 구축한 박현지 작가의 회화 및 도자, 섬유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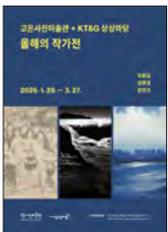
- 📅 1월 20일(화)-3월 22일(일) 을숙도 들락날락 제23전시실
- 🎫 무료
- ☎ 을숙도 들락날락 294-0505



**달의 여정: 부산달항아리**

조선시대 대표적 백자 유물인 달항아리와 부산 출신 설치미술가 한원석 작가의 현대 설치작품 '환월(還月, Re:moon)'을 연계한 순회전. 3월 31일까지 달맞이공원에 설치되는 작품 '환월(還月)'은 폐기된 자동차 헤드라이트 약 600개를 재활용해 제작한 달항아리 형상의 설치미술 작품으로, '죽은 빛의 회복'과 '자연의 순환'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같은 시기 부산박물관 미술실에서 만날 수 있는 보물 '백자대호'는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환월'은 6월 29일부터는 부산박물관 야외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전시된다.

- 📅 1월 26일(월)-8월 30일(일) 해운대 달맞이공원, 부산박물관 미술실·야외정원
- ☎ 부산박물관 610-7111



**고은사진미술관+KT&G 상상마당 올해의 작가전**

고은사진미술관은 2012년부터 KT&G 상상마당 함께 사진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작업의 완성도와 실험정신을 겸비한 신진 작가를 발굴·지원하는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올해의 최종 사진가'로 선정된 성의석과 '올해의 사진가'로 선정된 김영경, 지원김의 작업을 소개한다. 올해의 작가 3인은 사진을 기록적, 확장적, 실험적 매체로 활용하여 과거의 기억-현재의 감각-미래의 징후를 연결한다.

- 📅 1월 29일(목)-3월 27일(금) 고은사진미술관
- 🎫 무료
-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사랑, 욕망, 그리고 황금 구스타프 클림트 레플리카전**

20세기 유럽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레플리카 특별전. 특히 황금빛 장식성과 상징적 이미지가 결합된 클림트의 '황금양식(Golden Style)'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미술사에서 독보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해외 주요 미술관에 소장된 원작을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고품질 레플리카 작품을 통해 그의 독창적인 화풍과 예술 세계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 📅 2월 25일(수)-3월 31(화)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 🎫 무료
-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핀탄 웰렌 개인전 Listen to the Sea Speak**

수영구에 위치한 독립 현대미술 전시공간인 어라이즈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아일랜드 출신 현대 회화 작가인 핀탄 웰렌(Fintan Whelan)의 개인전. 부산에서 열리는 첫 개인전으로,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움직임과 리듬, 흐름을 연상시키며, 이는 물, 기억, 인식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겹겹이 쌓인 표면과 변화하는 색조는 의미가 고정되지 않은 공간을 형성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바다의 본질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 📅 3월 7일(토)-3월 22일(일) 어라이즈아트스페이스
- ☎ 어라이즈 아트스페이스 0507-1457-4961

# 2026 상반기 아카데미

## 김상헌과 함께 떠나는 클래식 여행



강사 **김상헌**  
4.13.~6.22.(월), 10회  
14:00~16:00, 220,000원

## 미술사를 바꾼 101명의 작가들



강사 **이진숙**  
4.22.~7.1.(수), 10회  
16:30~18:30, 220,000원

## 뮤지컬, 도대체 너의 정체는?



강사 **황조교(황정후)**  
4.16.~4.23.(목), 2회  
14:00~16:00, 44,000원

## 해 금

강사 **윤해승**  
3. 9.~6.29.(월), 16회, 19:00~20:30, 260,000원

## 피 리

강사 **진형준**  
3. 9.~6.29.(월), 16회, 19:00~20:30, 260,000원

## 사물놀이

강사 **이주현**  
3. 9.~6.29.(월), 16회, 19:00~20:30, 260,000원

## 거문고

강사 **박하혜**  
3.10.~6.30.(화), 16회, 19:00~20:30, 260,000원

## 무 용

강사 **허태성**  
3.10.~6.30.(화), 16회, 19:00~20:30, 260,000원

## 가야금

강사 **정세희**  
3.11.~7. 1.(수), 16회, 19:00~20:30, 260,000원

## 대 금

강사 **김소희**  
3.11.~7. 1.(수), 16회, 19:00~20:30, 260,000원



# 문화가 일상이 되는 배움의 시간

## 2026년도 (재)부산문화회관 상반기 아카데미

3월 9일(월)-7월 1일(수)

### 부산문화회관 컨퍼런스홀 및 배움터 연습실

시민을 위한 통합 문화예술 아카데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재)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상반기 강좌가 3월 9일 개강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음악·미술·공연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통합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 누구나 예술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강의 중심의 인문교양 프로그램과 현장감 있는 실기 교육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문화 향유를 넘어 ‘배움으로서의 예술’을 실현한다.

### 클래식·뮤지컬·미술 아우르는 인문교양 강좌

먼저 인문교양 강좌로는 지난해 하반기 아카데미에서 큰 호응을 얻은 김상현 교수의 ‘김상현과 떠나는 클래식 여행’이 다시 한번 시민들과 만난다. 클래식 음악을 쉽고 깊이 있게 풀어내는 강연으로, 클래식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4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된다. 대중적 관심이 높은 뮤지컬을 주제로 한 강좌도 마련됐다. 황정후 강사가 진행하는 ‘황조교의 뮤지컬, 도대체 너의 정체는’

은 4월 16일과 23일, 매주 목요일 총 2회 특강으로 진행되며, 뮤지컬의 역사와 구조, 장르적 특성을 흥미롭게 조명한다. 또한 미술사 분야에서 철학적 깊이와 명확한 시선으로 정평이 난 이진숙 교수의 ‘미술사를 바꾼 101명의 작가들’ 강좌는 4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운영된다. 미술사를 관통하는 주요 작가들을 통해 예술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실기 중심 예술 교육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예술 역량을 지닌 부산시립예술단과 협업하는 실기 강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선보인다. 시민들이 직접 예술을 체험하고 예술가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사물놀이, 피리, 해금, 거문고, 대금, 가야금, 무용 등 총 7개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시민들은 전문 예술가에게 직접 배움을 얻는 동시에 지역 예술과의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상반기 아카데미 강좌는 현재 수강신청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http://www.bscc.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051-607-6000, ARS 2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에 여승헌 선임

공석이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에 천웅국악관현악단 여승헌 부지휘자가 선임됐다. 추계예술대학교 국악학과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을 거쳐 현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박사) 졸업을 앞두고 있는 여승헌은 미추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밴드 파인트리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여승헌 지휘자는 앞서 지난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50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객원지휘자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2026 교향악축제 참가

4월 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4월 1일부터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26 교향악축제'에 참가한다.

지난 1989년 예술의전당 음악당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교향악축제'는 명실상부 세계 유일, 세계 최대의 관현악 대제전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들과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협연자들이 함께 하며 우리 음악계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의미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교향악축제는 'Connecting The Notes'라는 부제로 작품과 작품, 연주자와 연주자, 지역과 세계, 전통과 현대가 이어지는 음악의 흐름에 주목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4월 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홍석원 수석객원지휘자의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요한 달레네의 협연으로 북유럽의 강렬한 서정과 기교가 빛나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과 쇤베르크의 관현악 편곡으로 새롭게 태어난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제1번'을 연주한다. 요한 달레네는 2019년 칼 닐센 국제 콩쿠르 우승 이후 탁월한 음색과 존재감으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연주자로 사랑받고 있다.

## 2026년 제1기 SNS프렌즈 발대식 개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재)부산문화회관 제1기 SNS프렌즈가 2월 20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SNS프렌즈는 변화하는 SNS 환경에 발맞춰 기존 운영되던 이원 체계의 SNS서포터즈와 SNS주부홍보단을 합친 통합 온라인 홍보단으로, 가족·청년·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며 SNS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제1기 SNS프렌즈는 지난 1월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의 생활문화 인플루언서를 포함,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SNS를 통한 홍보활동에 관심이 많은 부산 거주 시민 5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개인 SNS채널을 활용한 공연, 전시 프로그램 및 기관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 BSCC

P R O G R A M

##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6 상반기 공연프로그램 안내

###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전화예매 | 대표번호 051-607-60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매 취소 및 변경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7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취소마감은 공연 전날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

# 2026. 1-6월

January - June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 부산문화회관

따뜻한 감성동화 대한민국 대표 가족뮤지컬  
**가족뮤지컬 <구름빵>**

**문화 | 중극장** 2026. 1. 23.(금)-24.(토)  
 금요일 10:30am, 2:00pm, 토요일 11:00am, 2:00pm  
 ※금요일 오전 회차는 단체관람만 가능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프로듀서 | 정유란 • 연출 | 이태린 • 극본 | 서희정  
 ※ 관람연령 | 전체관람가(1인 1좌석)



당신의 삶이 영화가 되는 시간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

**문화 | 중극장** 2026. 3. 14.(토) 2:00pm  
 R석 55,000원 S석 44,000원  
 • 출연 | 홍진호(첼로), 박현수(보컬), 조윤성(피아노),  
 석다연(드럼), Sean Pentland(베이스)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피와 욕망, 권력에 눈먼 자들의 광기  
**연극 <칼로막베스>**

**문화 | 중극장** 2026. 4. 4.(토)-5.(일) 3:0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관람연령 | 13세 이상 관람



사실 그 날, 용궁에선 기록에 남지 않은  
비밀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다!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문화 | 사랑채** 2026. 5. 2.(토) - 7. 25.(토)  
 평일 10:30am(단체관람), 토요일 및 공휴일 11:00am, 2:00pm  
 \*일요일 및 월요일 공연 없음  
 전석 30,000원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관람(1인 1좌석)



### 부산시민회관

기억이 불러온 가상은 현실의 위로일까, 망상일까  
**연극 <시물라시옹>**

**시민 | 소극장** 2026. 1. 16.(금)-17.(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3:00pm  
 전석 50,000원  
 • 연출 | 이태린 • 작가 | 최왕현  
 • 출연 | 송철호, 신사랑, 유연, 안창현, 임지영, 송예준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공연계 최고 권위의 상 "TONY AWARDS!" 6관왕 수상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시민 | 대극장** 2026. 2. 1.(일)-2. 8.(일)  
 화-목 7:30pm, 금요일 3:30pm, 7:30pm, 주말 2:00pm, 6:30pm  
 R석 90,000원 S석 80,000원 A석 70,000원  
 • 작작사 | 박천후 Hue Park  
 • 작작곡·편곡 | 윌 애런슨 Will Aronson  
 ※ 관람연령 | 14세 이상 관람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올 댓 차이콥스키**

**시민 | 대극장** 2026. 2. 27.(금), 6. 19.(금),  
 8. 21.(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출연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네오편하모닉오케스트라,  
 뉴아이티드코리안오케스트라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라보>의 클래식 상자 - 하이든**

**시민 | 소극장** 2026. 2. 28.(토) 11:00am, 2:00pm  
 전석 30,000원  
 • 출연 | 라보(시간여행 가이드), 라보챔버오케스트라  
 ※ 관람연령 | 30개월 이상(1인 1좌석)



시대를 넘어 사랑받는 발레의 정수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시민 | 대극장** 2026. 3. 19.(목)-20.(금) 7:3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50,000원  
 • 출연 | 국립발레단  
 • 음악 |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 안무 | 유리 그리고로비치(Yuri Grigorovich)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진짜 내 안의 나를 찾아서  
**뮤지컬 <인사이드 미>**

**시민 | 소극장** 2026. 3. 28.(토) 2:00pm, 5: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연출 | 서홍석 • 음악안무 | 이윤희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데뷔 70주년을 맞은, 건반위의 구도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시민 | 대극장** 2026. 4. 3.(금) 7:30pm  
 R석 100,000원 S석 70,000원 A석 50,000원  
 • 출연 | 백건우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동서양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  
**살롱 드 국악 I - 첼로가야금**

**시민 | 소극장** 2026. 4. 10.(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출연 | 김솔 다니엘(첼로), 윤다영(가야금)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무속음악의 핑키(funky)함을 전하다  
**살롱 드 국악 II - 추다해차지스**

**시민 | 소극장** 2026. 4. 17.(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출연 | 추다해(리더, 보컬), 시문(기타), 김재호(베이스), 김다빈(드럼)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제45회 서울연극제 자유경연작 부문 '최우수상' 수상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The Clown>**

**시민 | 소극장** 2026. 4. 23.(목) 2:00pm(단체관람),  
24.(금) 2:00pm(단체관람), 7:30pm, 25.(토) 2:00pm  
전석 40,000원  
• 원작 | 윌리엄 셰익스피어 • 연출 | 홍성연  
• 출연 | 강나리, 구육분, 류찬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시민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2026 시민뜨락축제(상반기)>**

**시민 | 야외광장** 2026. 4-5월 예정 12:10pm  
무료



하츠펙과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

**시민 | 대극장** 2026. 5. 2.(토) 5:00pm  
R석 88,000원 S석 77,000원 A석 66,000원  
• 출연 | 지휘자 김성진, 디토 오케스트라, 뮤지컬 배우 6인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관람(1인 1좌석)



화류비련극의 레전드가 온다

**화류비련극 <홍도>**

**시민 | 대극장** 2026. 6. 12.(금)-13.(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3:0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원작 | 임선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 각색/연출 | 고선웅  
※ 관람연령 | 13세 이상 관람(중학생 이상)



집착에 눈 먼 자들이 벌이는 그로테스크한 난장

**창극 <살로메>**

**시민 | 대극장** 2026. 8. 29.(토) 3:0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출연 | 김준수 외 (추후공개) • 원작 | 오스카 와일드 Salome  
• 극본 | 고선웅 • 연출 | 김시하  
※ 관람연령 | 13세 이상 관람(중학생 이상)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 부산콘서트홀 / **낙동** 낙동아트센터 / **금정** 금정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2026 신년음악회**

**시민 | 대극장** 2026. 1. 15.(목)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지휘 | 백승현  
• 바이올린 | 김현서



제627회 정기연주회  
**DIGNITY**

**부산 | 콘서트홀** 2026. 1. 29.(목)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지휘 | 홍석원



제628회 정기연주회  
**겨울, 꿈**

**시민 | 대극장** 2026. 2. 26.(목)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지휘 | 홍석원  
• 피아노 | 신창용



기획연주회  
**세계 클래식 음악산책 1**

**문화 | 중극장** 2026. 3. 13.(금)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 홍석원  
• 테너 | 이범주



제629회 정기연주회  
**축제**

**부산 | 콘서트홀** 2026. 3. 26.(목) 7:30pm  
**낙동 | 콘서트홀** 2026. 4. 1.(수)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지휘 | 홍석원  
• 바이올린 | 요한 달레네



기획연주회  
**실내악 시리즈II <중인I>**

**문화 | 챔버홀** 2026. 4. 15.(수) 7:30pm



제630회 정기연주회

### EROICA

**부산 | 콘서트홀** 2026. 4. 24.(금)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지휘 | 백승현  
• 피아노 | 김다솔



기획연주회

### 우리 아이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6. 5. 6.(수) 11:00am, 7:30pm



제631회 정기연주회

### 부산, 말러

**부산 | 콘서트홀** 2026. 6. 18.(목)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지휘 | 홍석원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 부산-광주 교류음악회 'Friendly Concert'

**낙동 | 콘서트홀** 2026. 3. 17.(화) 7:30pm  
• 지휘 | 이기선, 임창은  
•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 어린이 뮤지컬 '꿈을 향해!'

**문화 | 중극장** 2026. 5. 1.(금) 7:30pm,  
5. 2.(토) 11:00am, 3:00pm  
• 지휘 | 엄보영



제200회 정기연주회

### 벤저민 브리튼 'War Requiem'

**부산 | 콘서트홀** 2026. 5. 28.(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합창 | 부산-광주-대구시립합창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201회 정기연주회

### 2026 SUMMER FANTASY

**문화 | 중극장** 2026. 7. 23.(목) 7:30pm  
• 지휘 | 엄보영  
• 타악 | 이성하  
• 연주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202회 정기연주회

### 현대합창의 밤VI

**문화 | 중극장** 2026. 9. 18.(금) 7:30pm  
• 지휘 | 이기선



특별연주회

### 제37회 부산합창제

**문화 | 중극장** 2026. 11. 3.(화)-11. 5.(목) 7:00pm  
• 지휘 | 이기선



제203회 정기연주회

### 2026 송년음악회 'A Child of Our Time'

**부산 | 콘서트홀** 2026. 12. 3.(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 부산시립무용단

제93회 정기공연

### 바다결에 오래였으나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시민 | 대극장** 2026. 4. 24.(금) 7:30pm,  
4. 25.(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운



특별공연

### 이정운의 댄스살롱 - 한 여름밤의 댄스파티

**장소 미정** 2026. 7. 24.(금) 7:30pm, 7. 25.(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운

이정운의  
댄스살롱

제94회 정기공연

### 동백

**시민 | 대극장** 2026. 10. 30.(금) 7:30pm, 10. 31.(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운



특별공연

### 홀로홀출 나의 길 나의 춤

**문화 | 중극장** 2026. 12. 11.(금) 7:30pm, 12. 12.(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운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2026 신년음악회

**금정 | 금빛누리홀** 2026. 2. 12.(목)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특별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영남 風流’**

시민 | 대극장 2026. 3. 26.(목) 7:30pm  
• 지휘 | 이동훈, 이건설



특별연주회  
**국악 브런치 콘서트 ‘국악 살롱, Salon’**

문화 | 중극장 2026. 4. 23.(목) 11:00am  
• 예술감독 | 이동훈



제234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V ‘사제 동행’**

문화 | 중극장 2026. 5. 14.(목)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제235회 정기연주회  
**국악의 날, 다시 울리는 우리 소리**

문화 | 중극장 2026. 6. 5.(금)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예술교육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하는  
‘역사 속 우리 음악 이야기’**

시민 | 대극장 2026. 7. 2.(목)-7. 3.(금) 10:30am  
• 예술감독 | 이동훈



특별연주회  
**열대야 국악 재즈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6. 8. 11.(화)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제236회 정기연주회  
**부산, 청년**

문화 | 중극장 2026. 9. 17.(목)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문화 | 중극장 2026. 9. 30.(수)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제237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VI  
‘2026 부산 국악작곡콩쿠르’**

문화 | 중극장 2026. 10. 29.(목)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특별연주회  
**제51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6. 11. 24.(화)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제238회 정기연주회  
**2026 송년음악회 ‘No Boundary’**

시민 | 대극장 2026. 12. 18.(금)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뮤지컬아카데미 ‘오즈의 마법사’**

문화 | 중극장 2026. 2. 28.(토) 3:00pm, 7:00pm,  
3. 1.(일) 1:00pm, 5:00pm  
전석 10,000원  
• 원작 | 라이먼프랭크 바움  
• 각색, 연출 | 윤준기 • 작곡 | 강현민  
※ 관람연령 | 전체 관람가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신데렐라\_너의 뜻대로’**

문화 | 사랑채극장 2026. 4. 3.(금)-4. 25.(토)  
평일 11:00am, 토요일 11:00am, 2:00pm  
전석 12,000원  
• 대본, 작사 | 김영화 • 작곡, 음악감독 | 이영재  
• 작사, 연출 | 이현우 • 안무 | 홍충민  
※ 관람연령 | 전체 관람가(48개월 이하 부모동반관람 권장)



제82회 정기공연  
**타오**

문화 | 중극장 2026. 7. 2.(목)-7. 3.(금) 7:30pm,  
7. 4(토) 4:00pm  
전석 20,000원  
• 원작 | 김세화  
• 각색, 연출 | 허석민  
※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제83회 정기공연  
**메데이아**

시민 | 소극장 2026. 9. 10.(목)-9. 11.(금) 7:30pm,  
9. 12(토) 4:00pm  
전석 20,000원  
• 원작 | 에우리피데스  
• 연출 | 박용희  
※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관람가



제84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미스 줄리'

시민 | 소극장 2026. 11. 27.(금) 7:30pm, 11. 28.(토) 4:00pm  
전석 20,000원  
• 작 |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  
• 연출 | 최용혁  
※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관람가



제84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인형의 집'

시민 | 소극장 2026. 12. 4.(금) 7:30pm, 12. 5.(토) 4:00pm  
전석 20,000원  
• 작 | 헨릭요한 입센  
• 연출 | 이혁우  
※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관람가



제84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바다로 가는 기사'

시민 | 소극장 2026. 12. 11.(금) 7:30pm, 12. 12.(토) 4:00pm  
전석 20,000원  
• 작 | 존 밀링턴 싱  
• 연출 | 차승호  
※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관람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9회 정기연주회  
트렌스: 음악의 헌정

문화 | 중극장 2026. 3. 18.(수)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 백승현  
• 피아노 | 정지수



특별연주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낙동 | 콘서트홀 2026. 5. 14.(목)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6. 6. 27.(토) 5:00pm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6. 7. 18.(토) 5:00pm



제80회 정기연주회

부산 | 콘서트홀 2026. 9. ※ 날짜미정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6. 10. 28.(수) 7:30pm  
• 지휘 | 백승현



제81회 정기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6. 12. 16.(수) 7:30pm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Friendly Concert

문화 | 중극장 2026. 3. 7.(토) 5:00pm  
전석 3,000원  
• 지휘 | 천경필



제169회 정기연주회  
뮤지컬 '공쥐 팔쥐'

문화 | 중극장 2026. 5. 30.(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70회 정기연주회  
더 큰 꿈을 향하여... Dreams to Dream

문화 | 중극장 2026. 9. 19.(토) 5:00pm  
• 지휘 | 천경필



특별연주회  
제37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중극장 2026. 11. 6.(금)-11. 7.(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71회 정기연주회  
우리 함께 노래해요 We sing together

문화 | 중극장 2026. 12. 19.(토) 5:00pm  
• 지휘 | 천경필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법인회원의  
혜택

##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법인회원의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 제휴업체 할인(사정 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 (재)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특별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  
\*차량번호 등록 시 할인 적용(1대에 한하며,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부산 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VIP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

(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가입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

(재)부산문화회관

#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SPECIAL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6년 예매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매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 1인 1매에 한해 예매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 예매 가능 공연

###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

2026년 5월 2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 ☀ 예매 완료 공연

### 연극 <시물라시옹>

1월 16일(금) 오후 7:30, 17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가족뮤지컬 <구름빵>

1월 23일(금) 오전 10:30, 오후 2:00, 24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Sound of Busan : 올 댓 차이콥스키

2월 27일(금) 오후 7:30, 6월 19일(금) 오후 7:30, 8월 21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라보'의 클래식 상자 - 하이든>

2월 28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

3월 14일(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뮤지컬 <인사이드 미>

3월 28일(토) 오후 2:00,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4월 3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연극 <칼로막베스>

4월 4일(토) 오후 3:00, 5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살롱 드 국악

4월 10일(금), 17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The Clown>

4월 23일(목) 오후 2:00, 24일(금) 오후 2:00, 오후 7:30,  
25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하류비련극 <홍도>

6월 12일(금) 오후 7:30, 1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창극 <살로메>

8월 29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명예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 자문위원



권홍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주)코팩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재)대송문화재단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주)한성테크 회장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김태진  
류용주  
손명찬  
오권석

(주)플라시스템 대표이사  
삼신교통(주) 회장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주)성원 회장

임말섭  
정문흠  
정상배

(주)미성하이텍  
(주)태영버스 회장  
한국라이엔기초건설(주) 회장

## \* 이사회원

강대일  
강서룡  
곽국민  
권한상

웰딩시스템 대표  
(주)효승테크 대표이사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김성우  
김암우  
김현태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주)상명 회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 김홍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 신한춘 (주)금정화운 대표이사
-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 이성규 김해주차장 대표
-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 이은석 (주)엘제이 이앤에스 대표이사
-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조기중 조기중치과의원 원장
-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 허정은 (주)제이세라믹 대표이사
-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 강득용 (주)프리미엄에셋 대표이사
-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 문민우 명인제약
-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 박홍근 삼강종합건설(주)
- 성원기 손내과의원 원장
- 손혜경 하나유치원 원장
-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 이상수 엘가 대표
- 이성임 굿엔프랜드주식회사
-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 이에리카정애 명성피셔리 주식회사
- 이종원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이현숙
- 임은자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원장
- 정명선 정민섭산부인과 원장
- 정민섭
- 정의화 (전)국회의장
-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 조준형 문우당서점 해광출판사 대표
- 하정태 (주)일신케미칼 사장
-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허혜영

■ 기본 예우

-  VIP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정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 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 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 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 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 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구(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 \* 참여기간 : 2026. 2. 26.(목)~3. 13.(금)
-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6. 3. 23.(월)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 기프트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 2026년 2월호 낱말퍼즐 당첨자 명단

010-\*\*\*\*-6325      010-\*\*\*\*-1287      010-\*\*\*\*-3882  
010-\*\*\*\*-3867      010-\*\*\*\*-3993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중 한 곳 이상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초대권 또는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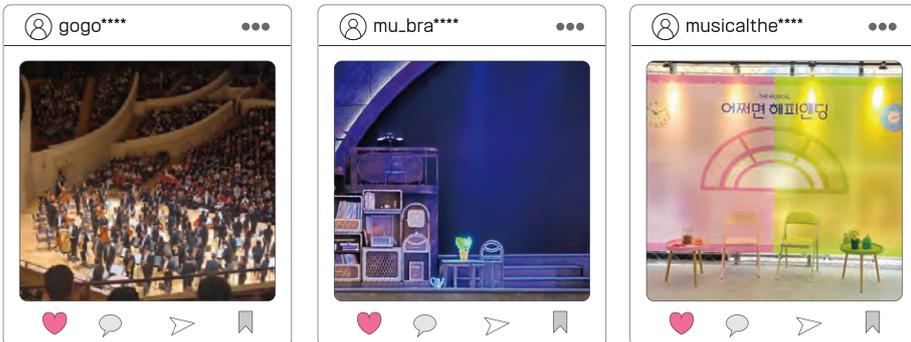
📷 @bsculturalcenter\_official

📺 @배시시TV

📘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 (재)부산문화회관

### #방문 인증 당첨자



## 부산문화회관 주차안내



사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출구에서 기다림 없이 빠른 출차가 가능합니다.

### 주차요금 안내

입차 후 4시간 이내	2천원
4시간 이후 10분당	200원
1일 최대	4,700원

### 할인대상(50%)

- 정기회원, 국가 유공자, 장애인
- 경차, 친환경, 다자녀, 요일제
- 2회 이상 수강등록한 아카데미 수강생

### 정기회원 주차 안내

- 주차요금 할인
- 기존 정기회원카드 제시가 아닌 사전 등록 차량에 회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하며, 정기회원 기간 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 차량번호 등록 방법

E-메일(cus@bscc.or.kr), 고객센터 센터를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 차량번호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607-6000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FRIENDLY 부산시립합창단 × 광주시립합창단 교류연주회 CONCERT



광주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임창은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이기선

벤틀노래 전경숙  
A Drop in the Ocean Ēriks Ešēnvalds  
Sing, Sing, Sing arr. Mark Hayes  
Senzeni Na arr. Michael Barrett 등 다수

2026. 3. 17. Tue. 19:30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합동교류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 영남 풍류

風流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이동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지휘 이진석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가희 정희정  
경기민요 김영임  
가야금 병창 풍류랑  
대금 김동현  
아쟁 최영운  
거문고 김수민  
사물놀이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

국악관현악 ROOT-영원한 울림  
가야금 병창과 국악관현악 심형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방아타령'을 주제로 한 <심봉사, 황성 가는 길>  
대금, 소아쟁, 거문고를 위한 협주곡 내일  
경기명창 김영임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한(恨) - 신현안삼거리 - 매화타령 - 창부타령 - 뱃노래 - 짜진뱃노래  
이상근 주계,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태양의 신(THE SOL)

2026. 3. 26. 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6

KOREAN NATIONAL BALLET

# SWAN LAKE

백조의 호수



2026. 3. 19.(목)-20.(금) 19: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출연 | 국립발레단 | 티켓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5만원 | 입장연령 | 7세 이상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http://www.bscc.or.kr) NOL ticket 1544-1555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작

고선웅 연출

# KILLBETH

붉은 피로 물든 왕좌,  
욕망이 낳은 광기의 연극



2026. 4. 4<sup>토</sup> | 4. 5<sup>일</sup> 1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